이냐시오의 영성수련 지침서

사 랑

재크린 시럽 버간
마리아 슈완 공저
강연중 옮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1권

사 랑

기도의 안내서

재크린 시럽 버간
마리아 슈완 공저
강연중 옮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1권

성모출판사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교우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이 내리기를 빕니다."

– 에페소 6, 23–24 –

목 차

추천사 ····· 8
머리말 ····· 10
한국의 독자들에게 ····· 11
감수자의 말 ····· 12
옮긴이의 말 ····· 14
일러두기 ····· 17
표지 도안 ····· 18
서문 ····· 20

기도 안내
A. 매일기도 양식 ····· 23
1. 준비 ····· 23
2. 기도 시간의 짜임새 ····· 24
3. 기도 후 반성 ····· 24
B.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 ····· 25
1. 묵상 ····· 25
2. 관상 ····· 26
3. 내심기도 ····· 27
4. 만트라 ····· 28

5. 묵상 독서 ····· 29
6. 영적일기 ····· 29
7. 반복기도 ····· 30
C. 영적 훈련과 도움들 ····· 32
1. 의식 성찰 ····· 32
2. 신앙 체험 나누기 ····· 33
3. 기도 중의 상상의 역할 ····· 35
4. 분심에 대한 대응책 ····· 35

당신의 사랑이 온 누리에 흘러 넘쳤나이다
제1주 : 제1일 하느님의 충만한 현존(시편 139, 1-18) ····· 40
제2일 너는 나의 귀염둥이(이사야 43, 1-7) ····· 45
제3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I 요한 4, 7-8. 18-19) ····· 49
제4일 볼 수 있게 된 사랑(출애굽기 19, 3-4) ····· 52
제5일 상냥, 친절과 연민(시편 103) ····· 55
제6일 반복기도 ····· 60

내 영혼이 당신의 좋으심을 즐기게 하소서
제2주 : 제1일 친절의 고삐(호세아 11, 1-9) ····· 64
제2일 두려움에서 신뢰로(루가 12, 4-7) ····· 68
제3일 하느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 71
제4일 영원한 사랑(시편 136) ····· 74
제5일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심(시편 8) ····· 79
제6일 반복기도 ····· 82

저의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향하도록 인도하소서
제3주 : 제1일 가소성이 좋은 진흙(예레미야 18, 1-6)…… 86
제2일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욥기 1, 21)…… 89
제3일 하느님의 광채(시편 104)…… 92
제4일 사랑의 언어(시편 19)…… 98
제5일 왜 하필이면 접니까?(욥기 38-39)…… 103
제6일 반복기도…… 108

아무것도 나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않게 하소서
제4주 : 제1일 옹기장이의 선택(로마 9, 20-21)…… 109
제2일 불 속에서(출애굽기 3, 1-6)…… 112
제3일 믿음의 축복(창세기 22, 1-18)…… 115
제4일 율법에서 사랑으로(필립비 3, 7-11)…… 119
제5일 희망(로마 8, 18-25)…… 122
제6일 반복기도…… 125

제5주 : 제1일 혼돈 속에서(이사야 45, 9-13)…… 128
제2일 신앙(히브리 11, 17-19)…… 132
제3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됨(I 고린토 9, 19-23)…… 135
제4일 그리스도 안에서(필립비 1, 21-26)…… 138
제5일 반복기도…… 141

당신이 뜻하지 않는 것을 결코 구하지 않게 하소서
제6일 신랑(요한 3, 22-32)…… 144

제6주 : 제1일 부르셨습니까?(I 사무엘 3, 1-11)····· 149
제2일 포기의 표본(루가 1, 26-38)····· 152
제3일 지혜의 간청(지혜 9, 1-12)····· 155
제4일 재판관에서 연인으로(로마 8, 31-39)····· 159
제5일 그리스도!, 하느님의 충만하심(에페소 3, 14-21)····· 163
제6일 하느님께 보내는 편지····· 167

부록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170
기도를 위한 도움 목록표····· 172
성서 구절 색인····· 174
참고 문헌····· 176

추 천 사

복음화 2,000년을 향한 거룩한 교회는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목 계획을 수립, 작은 공동체에서 교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초대 교회 모습을 닮아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서로 사귀고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이룩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속 깊이 서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 강생과 수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유의 삶을 관상하고 우리의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협력하기 위하여, 믿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책,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첫째 권 「사랑」과 함께 둘째 권 「용서」는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나오는 다섯 권(사랑, 용서, 탄생, 의탁. 자유)의 내용은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기초로 하여 평신도들을 위한 영신수련을 위하여 쓰여진 것인데, 최근에 와서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5개월 동안 50~60명의 교우들에게 '사랑'에 이어 '용서'의 영어 원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4~7명의 소규모 모임과 50~60명으로 구성된 모임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분들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영신수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들과 가정과 작은 모임과 그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대규모 공동체 안에서, 쇄신된 삶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사랑이신 하느님과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둘째 권「용서」에 이어 첫째 권「사랑」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읽혀지게 됨을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 백성 모두가 이 책을 통하여 영적심화와 복음화의 과정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가톨릭대학 교수 김창훈 신부

머 리 말

예수께서는 혼자 기도하셨다. 가끔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신 적도 있지만 자주 혼자서 기도하셨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모범이 보여 주듯이 오직 하느님과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기까지 하다.

하느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본 기도서는, 각 사람이 오로지 하느님과 홀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기도서는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감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본 기도 안내서는 모든 그리스도 인들을 위한 것이란 의미에서 초교파적이다. 초교파적인 노력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야 한다. 본 기도 안내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빌며, 기도생활을 통해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를 빈다.

1984년 5월 1일

크룩스톤 교구장, 빅톨 H. 볼크 주교

한국의 독자들에게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를 한국말로 옮기고 출판한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순간부터 우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 기도 안내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닌 희망 중의 하나는, 철저히 성서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겪는 삶의 체험에도 충실한 기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를 사용하여 혼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책들 속에서 그분들 자신의 내적 여정을 위한 기본틀과 받침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진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은총 가득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인다운 모든 행동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재클린 시럽 버간 & 마리아 슈완 수녀

감수자의 말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가 한국말로 출판되기까지에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본 감수자가 1987년 여름에 미국 위스컨신 주의 아시카 시에 있는 예수회 피정센터에서 이 책들의 두 분의 저자 중 한 분인 마리아 슈완 수녀님을 만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책들을 이용하여 여러 번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지도하면서, 한국의 신자분들도 이 시리즈를 쉽게 읽고 이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신적 진보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의 격려를 받고 이 책들을 곧 번역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의 학업 관계로 인하여 이 작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인천 대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강연중 선생님과, 미국 메사츄세츠 주 살렘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강구영 박사님의 도움으로 우선 다섯권의 시리즈 중에서 「사랑」과 「용서」를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번역을 담당해 주신 두 분과 마리아 수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가 한국말로 햇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서울 가톨릭대학 교수 겸 지도신부로 수고하시는 김창훈 신부님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책들의 출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책들을 위하여 추천의 글까지 써주신 김 신부님께 지면을 빌어 주님의 축복을 빌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보스톤에 거주하시면서 한인 공동체의 평신도로서 봉사하시는 이배훈, 안승희 두 분 부부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용서의 초역 원고를 읽고, 수

정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영문학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느라고 바쁜 중에도 영어의 뉘앙스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오진숙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두 권의 책이 우선 출판되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 독자들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두 책의 번역자가 서로 다르고, 두 분의 거주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랑」과 「용서」의 용어나 표현상의 일관성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 책들은 풍부한 영적 체험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적 통찰과 묵상의 결과로 이루어진 작품이어서, 한국말로 옮기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책들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책들의 출판을 담당해 주신 성모출판사 정옥동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평신도 지도자로서 한국 천주교회의 복음화 사명의 중요한 몫을 해 오셨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평신도 영성 생활에 필요한 좋은 책들의 보급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 형제님께 하느님의 축복을 빌면서, 독자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993년 성모 성월
Boston College에서 변희선 신부

옮긴이의 말

「사랑」이라는 책자를 받아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런 책을 번역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모두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 우리 말로 옮기는 일에 몰두하였다. 번역하는 동안 나 스스로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도 양식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이 책은 번역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의 새로운 기도 안내서가 되었다. 우주에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과 나에 대한 하느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의 방황과 냉담한 생활을 청산하고 포근한 하느님의 사랑을 찾게 되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느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느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시편 42, 1-2).

아무리 내가 탕자와 같이 하느님을 떠나 살다가도 당신 이름을 부르며 돌아설 때면 버선발로 뛰쳐 나와 돌아온 탕자를 껴안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하느님은 나를 포근하게 얼싸 안아 주신다.

"야훼는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귀울여 주셨다.
죽음의 끄나불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어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누를 때
나는 야훼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살려 주소서.'
야훼께서는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
미약한 자를 지켜 주시는 야훼이시라"(시편 116, 1-6).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의 말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I 요한 4, 7-9).

이제 이 사랑이라는 책자를 통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영성생활이 날로 성숙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번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채워 주시며 감수해 주신 변희선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성모출판사 정옥동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자를 펴내기 위해 애쓴 모든이의 노고와 사랑이 부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1993년 5월 22일

인천에서

강연중(요셉)

일러두기

이 책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이 책의 맨 앞 부분에 나오는 기도 안내를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에 다른 영신 서적이나 소설처럼 이 책을 읽으신다면, 원 저자의 본래의 지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독자들께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겠습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생소하신 분들께서 이 책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영적인 조언자들(사제, 수도자, 평신도)을 만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영신수련에 대한 체험과 지혜가 풍부하신 분을 중심으로 신앙 체험 나누기 모임을 가지면서 이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초심자들께는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성서 구절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공동 번역 성서를 원본대로 인용하였으나, 최근에 출판된 200주년 신약 성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판 원본에는 참고 서적들에 대한 인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한국 독자들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한국말로 출판된 참고 서적들 중에서 몇 권을 소개합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윤양석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샘 — 영성 수련을 위하여 앤소니 드 멜로, 분도출판사편집실 역, 분도출판사.

성경과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의한 피정 토마스 버크,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역.

여섯 개의 길 G.허치슨, 차순향 옮김, 성바오로출판사(77-106쪽).

영적 성장과 내적 치유 J.J. 휠러, 박홍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표지 도안

자, 겨울은 지나가고
장마는 활짝 걷혔소.
산과 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접붙이는 때
비둘기 꾸르륵 우는 우리 세상이 되었소(아가 2,11-12).

"즐거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계절"이 막 시작되었다; 교회 어디서나 기도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 인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겨울은 지나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돌아왔다. 즉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봄을 알리는 전령(傳令)들 가운데 옛 보금자리에 돌아와 둥지를 트는 새들을 들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인간의 귀소본능(歸巢本能)뿐 아니라 창의적 충동이나 초월욕구의 상징이었다.

성서를 보면 자주 비둘기를 인용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가에서 비둘기는 봄을 알려 주고, 창세기에서 올리브 잎을 물고 온 비둘기는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 준다(창세 8,11).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비둘기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마르 1,6). 첫 권 「사랑」의 표지에 있는 한 쌍의 비둘기가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듯이 제2권의 표지는 하느님의 조건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한다.

비둘기는 부른다 :

"나의 귀여운 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갔어요"(아가 2,10-11).

표지는 미네소타의 인기 화가 캄벨(Donna Pierce Campbell)이 도안하였는데 그 아름답고 싱싱한 양식은 이 기도 안내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쇄신의 성령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서 문

본 기도 안내서는 지난 여러해 동안 미네소타 북서부 전역에 걸친 본당 쇄신 피정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목격한 영적인 목마름에 자극을 받아 펴내게 되었다.

신자들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안내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교회의 영성적 전통의 중요한 자료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평신도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은 이 전통 중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보배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은 16세기의 평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기 위해 쓰여졌는데 최근에 와서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영신수련은 성서, 내적 쇄신 및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꼭 부합한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영신수련의 양식을 본당 쇄신 피정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개인 기도와 생활 환경을 연결시키면서 평신도들의 필요, 언어 및 생활 양식에 걸맞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본 기도 안내서는 다섯 권 중 첫째 권으로 각 권은 일련의 성서 구절과 함께 해설과 시험적인 기도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주제는 영신수련의 각 단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 시리즈의 첫째 권「사랑」에서는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에 들어 있는 주제들을 사용하였다. 그 주제들은 인간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편심(不偏心), 그리고 투신 등이다.「사랑」에서는 하느님의 사랑 및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등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본 기도 안내서는 개인 기도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특별히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작은 모임에서 신앙을 나누는 지침서로도 이용될 수 있다.

본 시리즈는 영신수련이나 그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본 시리즈는 다만 영신수련에서 발견되는 회심(悔心)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동(力動, dynamic)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의 접근 방법을 발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섭취하고, 그분의 각별한 사랑을 체험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갖고 계시는 독특한 계획을 의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본 안내서를 사용하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 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에페 1, 17-19).

1984년 성 요셉 성월

재클린 시렵 버간 & 마리아 슈완 수녀

기도 안내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루가 11, 2)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이다.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느님께 나아간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이신 그분께 응답한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과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제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A. 매일기도 양식

기도 할 때마다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십시오:

1. 준비

+ 매일기도 시간을 최소한 2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잡도록 한다. 60분이라는 시간에 어떤 "신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도에 몰입하는 데에는 대개 한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 전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그 다음날의 성서 구절과 해설을 미리 읽는다. 잠들기 바로 전에 성서 구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2. 기도 시간의 짜임새

+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넷을 셀 동안 숨을 **멈추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 하느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 하느님께 당신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 당신이 선택한 성서 구절을 내용에 알맞는 **방법으로 읽고 반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적인 구절이나 이야기 형태를 취하지 **않은 구절은** 묵상(默想)을 하고, 이야기 형태를 취한 구절이나 사건에 관한 구절은 **관상(觀想)을 하십시오.**
  (25쪽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예수님이나 하느님 아버지와의 담화(談話)로써 **기도를 마치십시오.**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3. 기도 후 반성

기도 후 반성은 기도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성찰이다. 기도 시간중에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존하셨는지를 보다 깊이 깨닫는 것이 이 반성의 목적이다.

기도 후 반성 시간에는 주로 기쁨, 평화, 슬픔, 두려움, 갈등, 분노 등을 느끼는 우리의 감정 안에 드러나는 위안이나 쓸쓸함의 내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인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구한 은총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 기도 후 반성 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기도 후 반성을 영적 일기에 적음으로써 우리는 인격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일기는 우리의 영적 여정(旅程)의 귀중한 기록이다. 영적일기의 기록은 우리의 자아

완성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영적 지도자나 영적 반려자가 없는 경우 영적일기의 기록은 기도를 평가하고 명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경우 영적일기의 기록은 자신의 기도 체험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준비 자료가 된다.

기도 방법: 매 기도 시간 이후 공책이나 영적일기장에 날짜와 그 날의 성서 구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의 질문들에 답을 해 보십시오:

+ 특별히 나의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구절이 있었는가?
+ 나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 평화스러웠는가? 사랑을 느꼈는가? 슬펐는가? 실망했는가?
  이러한 느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느끼는가?
+ 다음에 기도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점이 있었는가?

B. 여러 가지 형태의 혼자 기도하는 방법

성서를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사람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는 기도 방법이 다르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마침내 특별한 성서 구절에 적합하고 우리의 개성이나 필요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해 질 것이다.

본 안내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1. **묵상:** 묵상 시간에는 마치 연애 편지를 대하듯이 성서 구절을 읽는다; 이 방법은 시적인 성서 구절을 기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기도 방법 :

+ 성서 구절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크게 소리를 내어 읽든가 속삭이는 소리로 읽으면서, 성서 말씀이 당신을 감싸도록 하며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 특히 당신의 관심을 끄는 부분에 머물면서, 마치 메마른 땅이 비를 받아들이듯이 그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 한 단어나 구절을 되뇌이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느낌들을 감지하십시오.
+ 마치 사랑하는 친구의 편지를 읽듯이, 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합창노래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서 구절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2. **관상 :** 관상을 통하여 우리는 성서 구절의 사건이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의 전 오관(五官)을 사용하여, 상상 속에서 성서 구절 안으로 들어간다.

신학자들은, 우리는 관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회상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세례 성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영(靈)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예수님의 영(靈)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어떤 신비를 상기시키시고 재생케 하신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 안에 빠스카의 신비를 재현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관상을 통하여 우리가 관상하는 특별한 사건을 재현하시며 그 신비 안에 현존하신다.

기도 방법 :

관상 기도 중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

+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하십시오 ;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 그 신비의 일부가 되십시오 ; 그 현장 속의 한 사람의 역할을 맡으십시오.
+ 각 개개인을 잘 관찰하십시오 ; 각자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각자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 내가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나의 삶이나 나의 가족 또는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담화(談話)하십시오.

+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 계십시오.
+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십시오.
+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되고자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하십시오.
+ 예수님께 응답하십시오.

3. 내심기도 : "내심기도 시간에 우리는 생각과 이미지를 초월하고,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 존재의 중심부로 내려간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

내심기도는 대체로 말없이 행하는, 아주 간단하며 순수한 기도 방법이다 ;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내심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부까지 내려간다. 그 곳은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고요함의 장소이다. 내심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의존함을 인정하고 사랑의 성령께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겨야 한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 8,26).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께서는 "아빠, 아버지" (로마 8,15)라고 외치신다.

기도 방법 :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시편 46,10).

+ 조용히 앉아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으십시오.
+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는 마음을 견지하십시오.
+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거나, 계단을 걸어 내려간다거나, 산을 내려간다거나,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보다 쉽게 당신의 깊은 자아의 중심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이십시오.

4. 만트라 : 내심기도의 한 방법으로서 "만트라" 또는 "기도말"을 사용한다. 만트라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구절일 수도 있다.

성서에서 따온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순간적으로 우러나온 말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 말이나 구절은 하느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우는 것이 만트라의 일종이다.

기도 방법 :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만트라를 천천히 반복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은-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숨을 들이 마시면서

ISBN 89-7098

하고 뒷 부분은-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숨을 내쉬면서 한다.

5. 묵상 독서 : "내가 입을 벌리자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하여 그것을 받아 먹으니 마치 꿀처럼 입에 달았다"(에제 3, 2-3).

성서나 영적 서적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다.

영적 독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 아래의 방법은 특히 기도가 어렵거나 무미건조할 때 도움이 된다.

기도 방법 : 영적 독서를 천천히 하면서, 가끔 독서를 중단하고 어떤 말이나 구절이 우리의 몸 안에 스며들도록 한다. 어떤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면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생각의 전부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한다.

당신 안에 받아들인 말을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하듯이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응답하십시오.

6. 영적일기 :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에페 3, 4).

영적일기는 묵상의 기록이다. 우리가 펜을 들어 우리의 생각을 종이에 옮길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참된 자신을 드러낸다.

영적일기를 쓰는 것은 다른 기록들과는 차이가 있다.

영적일기를 씀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신선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며 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체험한다. 따라서 영적 일기를 잘 쓰기 위

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 한다.

묵상 기록은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지나간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들이 더욱 강해지고 오랫동안 남아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적 일기의 기록은 분노, 두려움, 또는 원한과 같이 드러나지 않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일기를 씀으로써, 우리가 읽는 성서의 말씀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기도 방법 :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일기를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

a. 하느님께 편지 쓰기

b.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기록 ; 다른 사람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 또는 가치와 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죽음, 이별, 지혜 등을 의인화(擬人化)하여 그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다.

c.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록 ; 예를 들면,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마르 10,51) 또는 "왜 울고 있느냐?"(요한 20,15).

d. 예수님이나 다른 성서의 인물이 펜을 통하여 나에게 "말하게" 한다.

7. 반복기도 : "내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겠다." -성 이냐시오 로욜라-

반복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시어 일하시도록 지난 기도 시간

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반복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보다 잘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나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욱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우리는 반복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반복기도는 지난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지난 번에 가졌던 대화를 회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그때 뭐라고 하셨지요?"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반복-추후의 대화-을 통해서 첫 기도 시간에 느꼈을지도 모르는 슬픔이나 후회를 변화시키시는 치유의 현존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린다.

반복기도 시간에는 위로(기쁨, 따스함, 평화)의 느낌이 깊어질 뿐 아니라 쓸쓸함(고통, 슬픔, 후회)의 느낌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기도 방법 :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기쁨이나 슬픔 또는 혼란을 두드러지게 체험한 때의 기도를 선택하여 반복한다. 아마도 기도 준비의 부족으로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의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지난 번 기도 시간에 체험한 느낌들을 상기하십시오.
+ 출발점으로 지난 기도 시간에 가장 두드러졌던 장면이나 말 또는 느낌을 사용하십시오.
+ 기도 시간 중에 성령께서 당신 마음의 내적 움직임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C. 영적 훈련과 도움들

1. **의식 성찰** :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훤히 아십니다"(시편 139,1).

우리는 의식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현존하셨으며, 우리는 그날 하느님의 현존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발견하게 된다.

성 이냐시오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성 이냐시오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의식 성찰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의식 성찰을 통회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양심 성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의식 성찰은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환경, 감정들 안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기도 시간 후에 기도 후 반성을 하듯이 우리는 하루 생활이 끝난 후 의식 성찰을 한다. 의식 성찰을 매일 제대로 실천하면 하느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라나게 하는데 필수적인 완전한 균형을 얻게 된다.

의식 성찰은 다음을 반영한다 : "인격적인 사랑의 역동적인 움직임 :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고자 원하는 순서대로 말하고 싶어한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방법 : 의식 성찰을 위해 다음의 기도를 제안한다.
이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을 영적일기에 함께 기록할 수도 있다.

+ 아버지 하느님, 저는 온전히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이며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나이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 주님, 당신은 시간을 통하여 시간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을 밝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일하심을 믿나이다. 당신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꾸며주시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당신의 길에 놓는 장애물들을 보다 예민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소서.

+ 당신은 오늘 제 삶 속에 함께 계셨나이다. 이제 제가 다음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소서 :

  오늘의 사건 안에 현존하신 당신……

  제가 느꼈던 감정들 안에 현존하신 당신……

  당신의 부르심……

  저의 응답……

+ 아버지, 당신 사랑의 용서와 치유를 간청하옵니다. 제가 치유되기를 가장 바라는 오늘의 특별한 사건은……

+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으며 희망에 가득 차 제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며……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바라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은총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을 굳게 확신하나이다.

2. 신앙 체험 나누기 :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마태 18, 20).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핵심 문제에 대해 공동체원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야 한다. 그리스도 인들에게 이러한 대화란 신앙 체험을 나누는 것이며, 이것은 혼자서 하는 매일기도의 연장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 모임은 토론 집단도 아니고 감수성 훈련이나 사교 모임도 아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지적 또는 신학적 견해를 나누고 얻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다. 신앙 체험 나누기는 미리 설정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신앙 체험 나누기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집단으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여 몸소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이다(에페 4,12).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앙 체험 나누기의 한 방법이다. 신앙 체험 나누기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 나누도록 우리를 부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체험 나누기는 공동체를 결속시키시는 힘이신 그리스도의 영(靈)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됨을 의미한다.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조약돌이 떨어지는 풀장을 상상해 보라. 풀장 주위에 모여 있다고 상상하면서 회원들은 원형으로 모인다. 물 속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조약돌처럼 각 회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눈다. 모두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각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동심원들을 그리며 풀장의 가장자리로 번져나가는 물결처럼, 이 말씀들은 원 주위에 둘러선 각 사람의 마음속으로 사랑 안에서 확대되고 번져 나간다.

방법 : 미리 약속한 장소에 일곱 명 내지 열 명의 회원이 모인다.

+ 지도자는 회원들에게 얼마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라고 초대한다.
  이때 회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 지도자는 즉흥적인 기도나 미리 준비한 시작기도로써 침묵의 기도를 모은다.
+ 회원 중의 한 사람이 미리 정해서 각 회원이 혼자서 기도하며 묵상해 온 성서 구절을 읽는다.
+ 성서 봉독 후 잠시 침묵한다.
+ 지도자는 각 사람에게 성서에 나오는 한 단어나 구절을 함께 나눌 것을 초대한다.
+ 다른 회원이 그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 그 후 잠시 침묵한다.

+ 지도자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서 구절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말해 주는지 -도전, 위로, 초대 등 -간단히 나누도록 초대한다.
+ 그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 회원들은 주님께 즉흥적인 기도를 바친다.
+ 지도자는 축복의 말이나 주의 기도 또는 성가로 신앙 체험 나누기를 마친다.
+ 헤어지기 전에 다음의 모임을 위한 성서 구절을 발표한다.

3. 기도 중의 상상(想像)의 역할

상상이란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되살리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이다.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면에 끌어 올려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의미의 여러 차원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보다 깊은 현실을 상징한다.

활력있는 상상을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완전성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활력있는 상상을 신앙의 자세로 기도에 이용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권능과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된다.

성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고 감각적인 영상들을 풍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기도할 때 활력있는 상상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효과가 있다.

성서 이야기를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4. 분심(分心)에 대한 대응책

기도중의 분심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분심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두고 기도의 소재로 돌아가면 된다. 만약 분심이 계속되면, 그것은 분심의 대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결 상태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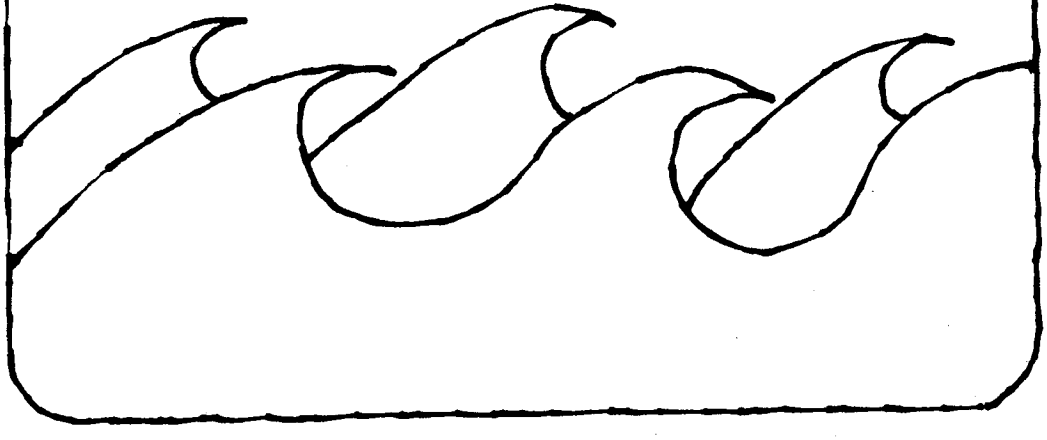
주 하느님, 당신의 사랑이 넘쳐 흘러
만물을 지으셨을 때
이미 당신은 저를 생각하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나이다.
오! 하느님! 나의 마음이 항상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당신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을 찬미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봉사하는 힘을 제게 주소서.
주 하느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건강도 질병도
부(富)도 가난도
명예도 치욕도
장수(長壽)도 단명(短命)도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외의 그 어느 것도
구하거나 택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사랑이

온 누리에

흘러 넘쳤나이다



시편 139, 1-18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니다.
그 아심이 놀라와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엄두도 아니납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의 날개 붙잡고 동녘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어둠보고 이 몸 가려 달라고 해 보아도,

빛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 달라 해 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 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 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세어 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사옵니다.

해설

시편 139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통찰들 가운데 하나를 상기시켜 준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신적인 신비'로 체험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시편 작가의 의도를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다. 이 시편은 감사의 노래일 수도 있고 변호하는 노래였을지도 모른다.

일부 학자들은 우상 숭배 죄로 고발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 시편을 썼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이 비인격적인 용어들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시인의 생생한 체험에서부터 이끌어낸 구체적인 이미지들로서 사방 어디에나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편 작가는 하느님 앞에 서 있다.

시편 첫 몇 행들을 보면 시편 작가는 자신의 오장육부까지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느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한 하느님의 눈길은 자칫 놓치기 쉬우면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병의 증세를 진단하며 꿰뚫어 보고, 조사하며 식별하는 내과의사의 눈길과 같다.

그것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학생의 감춰진 잠재 능력을 간파하고 실현되지 않은 꿈의 내적인 충동을 정확히 감지하는 경험 많은 교사의 눈길이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관조하는 것이며, 사랑의 품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을 창조자가 사랑스럽게 알아보는 것이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시인은 피할 수 없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처럼 하느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신다. 하느님은 하늘을 날듯이 기뻐할 때만이 아니라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당신 얼굴을 보여 주신다.

하느님은 인생의 고비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불충실한 마음속에도 계신다. 하느님을 피할 곳이란 아무데도 없다.

너무도 엄청난 사랑은 완벽한 응답을 요구한다.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시인은 자기 속을 들여다 보며 어머니의 태중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 속

에서도 활동하시는 신비로운 하느님의 창조적 행위를 경건히 묵상한다. 하느님의 손길은 시인의 인생의 여러 단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를 누르고 포개고 잡아당기면서 밀가루를 반죽하듯 빚으시고 이 순간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다.

기도 안내 — 나의 역사 속에 계시는 하느님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은총과,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기꺼이 마음을 여는 은사를 구한다.

+ 기도 방법
나의 일생을 되돌아본다.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나에게 일어난 특별히 의미깊은 열두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_____
11. _____
12. _____

이러한 사건마다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 가지 특별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그 때를 기억하고 상상력을 통해 그 당시를 다시 생생하게 그리며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몰입한다.

나는 그 현장 어디에 있는가? 그 날이 무슨 날이었던가? 그때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기쁨? 즐거움? ……아니면? 그때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도록 한다.

시편 139장을 기도한다. 시편 말씀이 내 안에 듬뿍 스며들게 한다.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하느님의 현존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채우도록 마음을 비운다.

하느님께서 나의 역사 속에 현존하여 계심에 감사드린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내가 초점을 맞추었던 사건과 기도 중에 체험한 느낌과 성찰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이사야 43, 1-7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 왔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 내지 않으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내가 해뜨는 곳에서 너의 종족을 데려 오고,
해지는 곳에서도 너를 모아 오리라.

내가 북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어서 내놓아라.'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잡아 두지 말라.'
아무리 먼 데서라도 나의 아들들을 데려 오너라.
땅 끝에서라도 나의 딸들을 데려 오너라.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해설

이 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시인이자 예언자인 이사야를 통해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역사적 관련 사항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 대목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어 주신 조상 야곱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창세 32, 23-33).

'물결을 헤치고 건너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한 구원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출애굽기 14장).

엄중하면서도 부드럽게 당신 백성 야곱(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주실 때만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지켜 주시며 보여 주신 당신 사랑을 상기시켜 주신다.

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두려움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다. 시간을 초월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시국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을 믿는다.

초기 이스라엘 인들에게 불과 물은 언제나 상존하는 실제적인 위협이었다. 불 앞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나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불길이 마을을 삼키고 집들을 모두 파괴할 때, 불꽃에 운명을 내맡길 뿐이었다. 뱃사람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도 속을 헤아릴 길 없는 검은 바다를 두려워했다.

근본적으로, 물과 불은 인간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징이다. 물과 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과 불은 정화와 새 생명, 능력, 에너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위험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물과 불의 표상은 두려움과 걱정과 희망을 불러 일으킨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을 때, 개인생활이나 사회 안 어디에서 '물결을 헤치고 건너며', '불 속을 걸어가는'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대목은 인간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그것은 두려움, 곧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남에게 밉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이러한 두려움에 싸여 있을 때, 야훼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고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움에 휩싸여 경황이 없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 같은 하느님의 위로의 말을 들었다. 하느님은 이런 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기도 안내 —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선(善), 친절하심, 그리고 성실성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5쪽)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시련과 난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시다.

이사야서 43장을, 하느님께서 몸소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 생각하며 읽어 나간다. 하느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파고 들도록 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흠뻑 스며들게 한다.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말이나 구절에 머물어 깊이 묵상한다.

하느님의 사랑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나 자신의 언어로 하느님께 조용히 말씀드린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떠오른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첫째 주, 셋째 날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

요한 I서 4, 7-8. 18-19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해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쉽게 하며 얼마나 자주 듣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진부한 표현인 이 구절을 어떻게 꿰뚫어 보는가? 성 요한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이해와 열린 마음에로 우리를 인도한다.

요한은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인간적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힘이며 모든 피조물, 즉 우리 각자를 존재하도록 하신 사랑이라고 요한은 단언한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되갚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하느님의 사랑은 효과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보는 방법, 응답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비록 하느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주변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의식할

때 하느님의 사랑은 '볼 수 있게'되며, 우리가 범한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 수없이 용서를 받아왔음을 깨달을 때 하느님의 사랑은 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하느님의 사랑은 볼 수 있는 것이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사랑의 체험들이 실망스럽더라도, 우리의 존재 내부에서 항상 살아 숨쉬고 열망하는, 우리를 계속하여 만드시고 존재토록 하시는 하느님의 영, 즉 사랑의 성령께서 계신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기도 안내 — 하느님을 바라보는 창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선(善), 친절하심, 그리고 성실성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은 체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나의 삶은 내가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 하느님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창' 수련을 통해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더 분명히 알아본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나의 성장 과정에 항상 현존하신 하느님께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모든 것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하느님-내가 어렸을 때 배우거나 들은 하느님.

하느님-나 자신의 체험과 탐구를 통해 알게 된 하느님.

하느님-내가 알고 싶은 하느님, 내가 바라는 하느님,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고 싶은 하느님.

아래 여백을 이용하여 이상 세 가지 과정의 묵상을 통해 얻은 느낌, 깨달음, 질문, 결심 등을 적어 본다.

첫째 주, 넷째 날 — 볼 수 있게 된 사랑

출애굽기 19, 3-4

모세는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 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해설

사막에서 석 달을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오아시스에 당도했다. 그들은 산쪽을 향해 천막을 쳤으며, 모세와 그 백성은 놀라운 제안을 받는다.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구해 내신 하느님께서 이제는 자유스러운 관계를 맺도록 그들을 초대하신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선택권을 주셨다. 그러한 선택권은 그들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변함없는 충실함-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돌보실 때만이 아니라 사막에서 그들을 돌보실 때 보여 주신 이러한 충실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였다.

독수리라는 고대의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현존과 능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여행을 떠날 때에도 함께 해주신다.

하느님의 제안은 율법적이며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제안하시는 내용은 사랑의 관계였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생활과 같은 것이었다. 계약은 공식적이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만, 계약의 이행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로 했을 때는 각별한 사랑의 일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치가 그들을 붙들어 주고 힘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우리가 이 제안을 수락하기만 하면 약속 '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고 거룩하고 축성된 사제다운 백성이 된다.

기도 안내 **놀라운 제안**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선(善), 친절하심, 그리고 성실성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는 눈으로 보았다"(여호 24, 7).
나의 인생사 가운데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떻게 너를 '인도해 왔으며' 돌봐주었는지 묵상한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랑이 나타났음을 상기한다. 즉, 물질적인 필요의 충족을 통하여, 나를 도와 주고 지탱해 준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과 목적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선물들이 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된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나를 돌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데서 느끼는 안전감과 자유를 체험하도록 한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이 모든 체험에 비추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맺으신 계약(서약)을 글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될지 상상해 보고 영적일기에 적는다.

너의 창조주인 나 하느님은 무조건 너 _____를 사랑하기로 동의하는 바이다. 나는 네 삶의 여러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을 보여 주겠다.

나는 _____로 너를 받들어 주겠다.

나는 _____으로 너를 채워 주겠다.

나는 네게 _____을 주겠다.

나는 _____을 하겠다.

내가 너를 처음 생각한 순간부터 이 약속의 조건들은 효력을 갖고 있어 왔다. 이 제안은 영원히 유효하다.

서명

하느님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시편 103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말아라.
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네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 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 주신다.
네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 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야훼께서는 정의를 펴시고
모든 억눌린 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신다.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장한 일을 알리셨다.
야훼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높기가 땅과 하늘에 비길 수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 그지없으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시고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야훼께서는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야훼의 사랑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당신과 맺은 계약을 지키고
주신 법령을 잊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 미치리라.
야훼께서는 하늘에 옥좌를 차리시고
온 누리를 다스리신다.
그의 모든 천사들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그 말씀의 일꾼인 능력자들아, 그의 말씀 익히 들어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 뜻을 받들어 모시는 신하들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야훼를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해설

이 시편은 구약의 마니피캇으로 찬미와 감사의 송가이다. 아름다운 문체를 지니고 있는 이 시편은 포괄적인 신학적 진술로서, 독특하고 심오한 시편 작가의 영성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시편은 전례에 맞게 노래로 표현되며 성가대보다는 개인이 노래했을 것이다. 하느님을 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새해가 시작될 때 주님이 옥좌에 앉으시는 즉위식 축제가 배경을 이루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 시편은 하느님과 개인의 관계를 극히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편 중의 하나다. 시편 작가는 하느님과 자신, 동족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체험한 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시편은 가까이 계시면서도 초월하시며 사랑스럽고 충실하신 하느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하느님은 우리의 숨결처럼 가까이 계신다. 하느님은 부숴진 우리를 고쳐 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기쁨 속에 서로 다정히 가진 것을 나눌 때, 거기에 현존하신다. 털갈이 하는 독수리에게 나는 데 필요한 새 털이 돋아나듯이, 우리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

자기 백성들 틈에 서서, 시편 작가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제시된 계약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상기한다. 이 계약은 영원한 사랑의 계약이었다. 여기서 사용하는 '헤세드(hesed)'라는 히브리 단어는 더없이 상냥하고 자애로우며 연민의 정을 가진 완벽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은 과분하며 무조건적인 은총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나약한 존재이며 비록 인생은 짧지만 우리 존재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속에서 완성된다고 시편 작가는 확언한다.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맡기기만 하면 된다.

끝으로 시편 작가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자비로이 안아 주신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주 하느님,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기도 안내 **사랑의 에너지**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선(善), 친절하심, 그리고 성실성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5쪽)

천천히, 여러 차례 시편을 읽는다. 시편을 읽으면서 나는 자애롭고 사랑스러우며 이해심 많은 하느님의 사랑을 들이마신다. 내 몸 속을 흐르는 사랑의 힘을 마음 속에

생생하게 그린다. 동맥이 내 몸의 모든 세포와 신경세포 연접부에 생명의 활력소를 공급해 주듯이, 하느님의 활력적인 사랑이 내 존재 전체에 파고 든다.

이 사랑이 가져다 주는 신선한 활력소를 스스로 체험하도록 한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시편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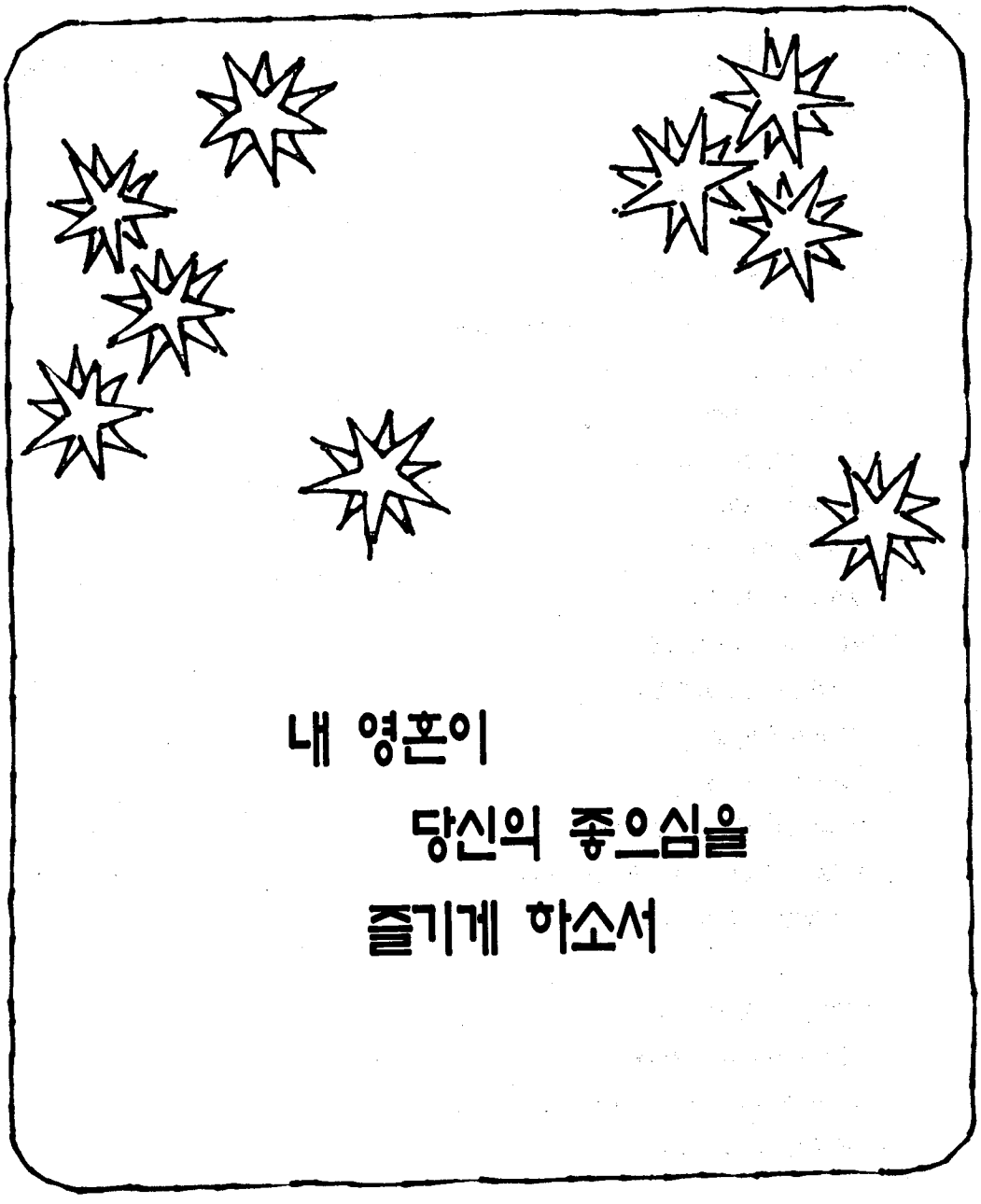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선(善), 친절하심, 그리고 성실성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30쪽에 있는 반복기도를 읽으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의 준비로 이번 주간의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기쁨이나 감사 또는 경외심으로 깊이 감명받았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그때 큰 감명을 준 장면, 말씀 또는 느낌에 초점을 두면서 전에 했던 그대로 되풀이 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내 영혼이

당신의 좋으심을

즐기게 하소서

호세아 11, 1-9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집트에서 불러 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렸다.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팔에 안아 키워 주고
죽을 것을 살려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 본다.
인정으로 매어 끌어 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 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 본다.

이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결국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들리라.
전화가 온 성읍들을 휩쓸 때,

점치던 사제들은 죽어 없어지고
제단들은 허물어지리라.
내 백성이 끝내 나를 저버리고
바알을 불러 예배하지만
바알은 저희를 높여 주지 않으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 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아무리 노여운들 내가 다시 분을 터뜨리겠느냐.
에브라임을 다시 멸하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나는 거룩한 신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지만,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은 아니다.

해설

모든 부모들은 '끈질긴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 알고 있다. 하느님께서도 말 안 듣는 당신 백성에게 호된 벌을 내리실 때 괴로워하고 고민하신다.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끈기있게 노력하시는 하느님을 보여 줌으로써 하느님의 마음 한 구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모와 같은 관심과, 한사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

호세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이스라엘을 양육해 주셨으며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으며, 안아 올려 볼을 비벼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이스라엘은 멀어져만 갔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정치적 동맹을 맺어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안전을 도모했다.

하느님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 드디어 분노가 폭발하셨다. 하느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멋대로 이집트로 가거라.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져라!"

부모들도 이런 경우 하느님과 똑같이 화를 냈을 것이며, 이러한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파멸로 치닫는 당신 백성을 보며 당신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통한 마음과 걱정을 떨쳐 버리지 못하시는 하느님을 부모들은 이해할 것이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하느님의 자비는 패배를 모른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느님을 배척하여 극심한 벌을 받아 마땅할지라도 하느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며 심판과 희망을 동시에 포함하는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달콤한 위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두운 시련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어두움은 프란시스 톰슨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팔을 뻗어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는 그분 손길의 그림자'다.

기도 안내 **사랑과 용서의 체험**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셨음을 깨닫고, 하느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며, 하느님의 현존이 위협이 아니라 선물임을 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용서받음을 체험한 때를 회상해 본다. 즉 내가 아주 반항적이었던 때조차도 사랑받았던 일을 돌이켜 본다. 상상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간다. 그 상황의 세밀한 부분까지 차근차근 회상한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용서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체험하도록 한다. 바로 그 인간적인 상황 안에서 표현되었던 하느님의 사랑을 나는 지금 의식하고 있는가?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루가 12, 4-7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 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느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참새 다섯 마리가 단돈 두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 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해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이 성서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우리 모두 믿어야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려움은 악마가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라고들 말해 왔다.

이 앞 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위선이라는 악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다. 위선자들은 실제의 자기와는 다른 자신을 내보이는 사람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해야 하고 주위의 평판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만 한다.

위선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등을 돌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위선이 다른 사람과의 안전을 어느 정도 도모해 줄는지는 모르지만, 참된 자아를 부인한 대가로 결국은 텅빈 자신의 구덩이 속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거기에 하느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지옥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너를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신뢰심을 통해 참새 한 마리, 극히 작은 걱정거리, 극히 짧은 순간, 풀잎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결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그토록 위대한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된다.

기도 안내 **격려의 편지**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셨음을 깨닫고, 하느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며, 하느님의 현존이 위협이 아니라 선물임을 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5쪽)

이 복음 구절이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히 보내신 편지인 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내 마음속의 모든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내 마음이 자신감에 넘치도록 한다. 두려움의 악령이 하느님의 용기의 영으로

변화됨을 상상한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둘째 주, 셋째 날 — 하느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사야 49, 14-16

'야훼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너 시온은 말하였었지.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

해설

이 구절은 하느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동적으로 묘사한 말씀 중의 하나다. 이 구절은 야훼와 당신 백성의 일치가 손상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해 주고 있다.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언제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며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사랑하다 잊어버리는 것이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말은 옳지 않다.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 아이가 자랐을 때, 어머니는 아이가 종알대던 첫마디 말과 발걸음을 떼던 첫 걸음마를 기억한다.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생명을 준다. 어머니는 약한 인간이기에 혹시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유배생활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이러한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리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이었다. 이스라엘 인들은 이사야의 말을 들으며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성서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창조적인 사랑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자녀들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죄악도 이러한 사랑을 무효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 주실 것이다.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기도 안내 **한 어린이의 탄생**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하느님을 열렬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간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나 자신을 어머니로 상상한다(비록 당신이 남자이더라도 따라서 하십시오).

상상 속에서 나는 아이를 갖고, 분만하고, 그 애가 자라남을 지켜본다. 아이가 잉태된 것을 처음 알았던 순간부터 시작한다. ……내 뱃 속에서 생명체가 처음으로 움직이던 때, 내 아이를 분만했을 때, 내 아들 또는 딸을 처음 안았을 때,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내딛었을 때, 첫마디 말을 옹알대었을 때…….

기억과 상상 속에서 나 자신의 모성애-감격, 기쁨, 애정-를 의식한다.

성서를 다시 읽으며 나의 어머니이신 하느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시편 136 : 감사도문

알렐루야,
어지신 분, 야훼께 감사노래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모든 신들의 하느님께 감사노래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모든 주인들의 주님께 감사노래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홀로 놀라운 일 이루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땅을 물 위에 펼치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큰 빛들을 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낮을 다스리라고 해를 만드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밤을 다스리라고 달과 별을 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을 치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억센 손, 그 팔을 휘두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홍해바다를 둘로 쪄개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건네 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파라오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처넣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사막에서 당신 백성 인도하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대왕들을 무찌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세력있는 왕들을 없애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들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물려받게 하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우리가 망했을 때 아니 잊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빼내 주셨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입 가진 모든 것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감사노래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해설

백성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백성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경이로우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합창단의 찬미가에 귀를 기울이며 듣다가 매번 머리를 들고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며 응송의 노래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과 마을에서 올라와 하느님을 찬미하며 인간의 마음속 깊은 감정을 표현한다.

때는 새해 축하행사이거나 장막축일을 시작하는 날이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뜰이다. 지금은 축하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며 의식을 고양시키는 때이다.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역대기 하권 7장에 묘사되어 있는 이러한 광경은 이 시편의 깊은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래 전례용인 이 시편은 회중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문(禱文)과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한 구절을 외우면 거기에 회중이 응답한다. 흥미롭게도 이 시편은 내용 전체가 순수하게 전례적인 시편에 속한다.

시편 작가는 자기 민족의 역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도록 예배자들의 묵상을 안내한다. 창조와 출애굽과 약속된 땅에 들어감과 거듭해서 당신 백성을 구해 주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느님의 현존이 기념된다.

이 시편의 힘은 모든 상황과 일상적인 사건들이 하느님의 자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란 단어가 유일하게 자애롭고 넓은 마음과 자상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느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심장의 고동처럼, 한마디의 충고와 같은 이 구절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의 단편들을 한데 모아 완전하게 만들도록 자극하고, 기쁨을 가져오도록 해준다.

기도 안내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전혀 위협이 아니라 항상 힘이 되어 주는 현존으로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만트라 : 28쪽)

우리는 때때로 어떤 단어나 이름 또는 구절을 반복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

아니면 사랑에 빠진 우리는 똑같은 사랑의 말들을 되풀이 한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시킨다.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감사의 율동 속에서 편히 쉰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는 말을 편안한 사이를 두고 반복한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시편 8

야훼,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주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집니다.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케 하셨습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가축과
들에서 뛰노는 짐승들하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물길 따라 두루 다니는 물고기들을
통틀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야훼,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해설

미셔너(Michener)의 소설 '우주(Space)'에 나오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복잡하고 광대하며 밤하늘을 수놓는 별자리들의 상호관계에 완전히 넋을 빼앗긴 쥰이란 청년과 같이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황홀함을 느낀다. 이 소설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주가 지니고 있는 약속과 힘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인 신원과 의미를 위한 인간적 탐구에 맴돌고 있다.

우리들 중에서 밤하늘을 관조하며 그 찬란함에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또 이처럼 웅대한 모습을 보며 겸허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시편 작가는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다.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였듯이, 자연 속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독특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편을 통하여 자연과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하느님의 계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시편 작가는 어린이와 같이 유치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음을 느낀다. 그러나 시편 작가는, 하느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이용해서 당신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신의 자의식적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노래한다.

별들을 우주 속에서 회전하게 하신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인간을 빚으셨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주 심오하게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신 피조물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사랑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러한 엄청난 선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소명을 받는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거룩함에로 부르시는 하느님께 의존하게 된다.

기도 안내

밤하늘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그토록 위대하시면서도 나를 돌봐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경외심과 의뢰심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5쪽)

이 기도를 바치기 위해 한 시간 동안 밤하늘의 별을 관조하는 사치를 누려 보겠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상상 속에서 찬란한 밤하늘을 그려보며 만끽하겠다. 시편 작가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느님께 의존함을 체험하면서 부른 하느님께 대한 찬미의 노래를 나도 같이 불러 보겠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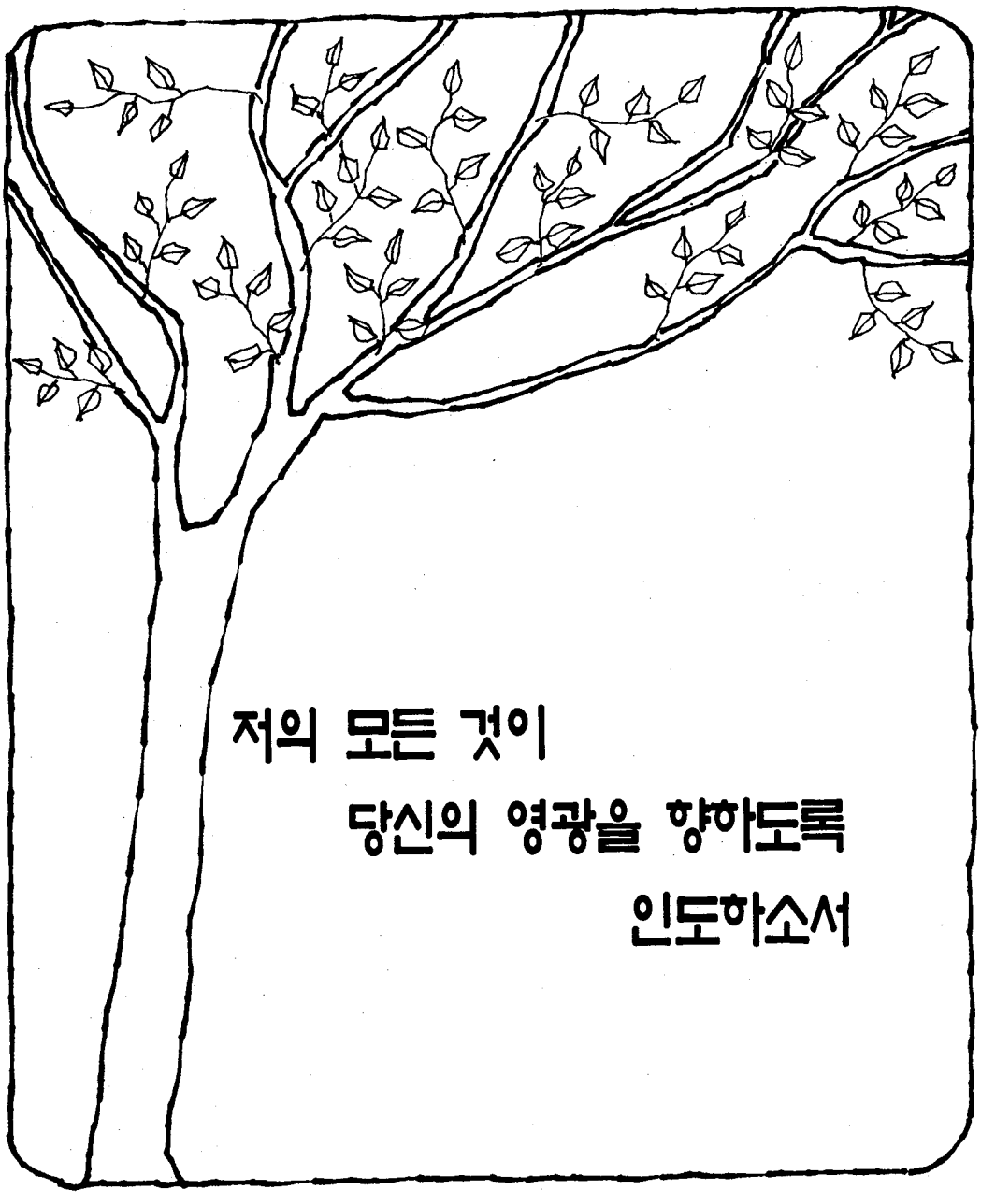
기도안내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그토록 위대하시면서도 나를 돌봐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경외심과 의뢰심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30쪽에 있는 반복기도를 읽으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의 준비로 이번 주간의 영적일기를 읽음으로써 나의 기도를 반성한다. 기쁨이나 감사 또는 경외심으로 깊이 감명받았던 날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그때 큰 감명을 준 장면, 말씀 또는 느낌에 초점을 두면서 전에 했던 그대로 되풀이 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저의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향하도록
인도하소서

셋째 주, 첫째 날 가소성(可塑性)이 좋은 진흙

예레미야 18, 1-6

야훼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는 곧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너에게 일러 줄 말이 있다." 말씀대로 옹기장이 집에 내려가 보았더니, 옹기장이는 마침 녹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옹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는 것이었다. 마침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 "진흙이 옹기장이의 손에 달렸듯이 너희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모르느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야훼가 하는 말이다. ……"

해설

가장 오래된 수공업 가운데 하나는 옹기 만드는 것으로, 수천 년 전 최초의 원시인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옹기는 원시인들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유일한 증거물일 때가 많다. 옹기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저장하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그들의 일상생활과 축제 행사들, 투쟁과 신앙-를 화려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예레미야는 평범한 일상 체험을 끌어들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는 옹기장이 집을 찾아가 진흙을 가지고 빚고 또 빚으며 작업을 하고 있는 옹기장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옹기장이를 하느님에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진흙에 비유하고 있다.

진흙의 질에 따라, 마무리된 그릇의 아름다움이 좌우된다. 진흙이 불순하면 예술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경우가 이와 같다고 말한다. 진흙이 옹기

장이의 손에서 가소성을 갖게 될 때에야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정말 그렇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며 협조할 때에야 하느님께서는 자유롭게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질 때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하느님과 우리는 동업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만든다. 예술가와 진흙이 함께 역동적인 창조의 관계를 가지듯이, 하느님과 당신 백성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인간적인 각도에서 표현하는 기쁨을 함께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얼굴 모습을 통하여 사랑스러운 팔 다리와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기도 안내 **옹기장이의 손**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나 자신을 진흙으로 상상한다.
나는 무슨 색깔의 진흙인가? 빨간색인가 회색인가 노란색인가?
나의 농도는 어떠한가? 메말랐는가 부드러운가 축축한가?

웅기장이이신 하느님의 손을 본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택하시고 준비하셨으며 정화시키시고 불순물과 기포들을 제거해 주셨는지 상기한다.

웅기장이이신 하느님께 주의를 집중한다. 그분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실까? 컵인가 꽃병인가 아니면 무엇일까?

나의 삶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감에 따라 하느님의 의도와 나의 소망,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역동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나의 그릇—나, 나의 자아—은 하느님의 얼굴과 사랑과 창조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둘째 날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욥기 1, 21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입을 열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해설

지금은 욥이 승복하는 순간이다. 가정과 우정의 기쁨과 위안을 박탈당하고 부와 명성을 다 빼앗기고 나서, 욥은 혼자 남아 하느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옷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깎는 것은 알몸과 종속성의 내적인 체험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욥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벌거벗고 태어났음을 인정한다.

욥은 모든 피조물을 어머니 대지가 껴안아 주듯이, 자기가 죽을 때 껴안아 주는 것은 어머니 대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황한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야훼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계속 고수한다. 분명한 인생의 수수께끼 속에서 욥은 하느님께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고 찬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전통적으로 그리고 많은 문화권에서 이러한 표현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할지 아는 자들의 용기와 힘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적이며 환경적인 몰락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원자핵에 의한 멸망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도 욥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도 안내

승복자의 만트라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만트라 : 28쪽)

욥처럼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다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과거를 기억한다. 상실(喪失)을 체험했던 때, 즉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실직했을 때, 인간관계가 결렬되었을 때 또는 명성을 잃어버렸을 때 등을 기억한다.

과거를 회상하며, 상실감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여 주셨는지 깊이 묵상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헐벗고 있다'고-뭔가 소중한 것이 없거나 잃어버린 것-체험하는 부분을 의식한다.

이 체험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아래에 있는 욥의 기도 중 하나를 이용하여 만트라 기도를 바친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기도의 앞머리는 숨을 들이 마시며 하고, 뒷부분은 숨을 내쉬며 한다. 이 기도문의 정신이 나의 비어 있는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한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시편 104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야훼, 나의 하느님, 실로 웅장하십니다.
영화도 찬란히 화사하게 입으시고
두루마기처럼 빛을 휘감았습니다.
하늘을 차일처럼 펼치시고
물 위에 궁궐을 높이 지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을 시켜 명령을 전하시고
번갯불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며,
땅을 주춧돌 위에 든든히 세우시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깊은 물로 땅을 입히셨더니
산꼭대기까지 덮은 물결은
꾸짖으시는 일갈에 움찔 물러나고
천둥소리, 당신 목소리에 줄행랑을 칩니다.
물들은 산을 넘고
골짜기로 내려가
당신께서 정하신 그 자리로 흘렀습니다.

당신께서는 금을 그어 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계곡마다 샘물을 터뜨리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들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나귀들도 목을 축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그 가까운 곳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귑니다.
높은 궁궐에서 산 위에 물을 쏟으시니
온 땅이 손수 내신 열매로 한껏 배부릅니다.
짐승들이 먹을 풀을 기르시고
사람이 농사지어 땅에서 양식을 얻도록
곡식을 또한 가꾸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도 내시고
얼굴에 윤기 내는 기름도 내시고
힘을 돋구워 주는 양식도 내셨습니다.
야훼의 나무들은 배부르게 마시니,
손수 심으신 레바논의 송백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그 꼭대기엔 황새가 집을 짓사옵니다.
높은 산은 산양들의 차지,
바위틈은 오소리의 피신처,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만드시고
해에게는 그 질 곳을 일러 주셨습니다.
어둠을 드리우시니 그것이 밤,

숲 속의 온갖 짐승들이 움직이는 때,
사자들은 하느님께 먹이를 달라고
소리지르며 사냥을 하다가도
해가 돋으면 스스로 물러가
제 자리로 돌아가 잠자리 찾고
사람은 일하러 나와서
저물도록 수고합니다.
야훼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사오나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고
땅은 온통 당신 것으로 풍요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우글거리고
배들이 이리 오고 저리 가고
손수 빚으신 레비아단이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장난감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먹이를 기다리며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쳐다보다가
먹이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 먹으니,
손만 벌리시면 그들은 배부릅니다.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러 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야훼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손수 만드신 것 야훼의 기쁨 되소서.

굽어만 보셔도 땅은 떨고
다치기만 하셔도 산들은 연기를 뿜는구나.
나는 한평생 야훼를 노래하리라.
숨을 거둘 때까지 악기를 잡고
나의 하느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이 노래가 그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나는 야훼님 품안에서 즐겁기만 하구나!

죄인들아,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
악인들아, 너희 또한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알렐루야.

해설

이 시편을 읽을 때, 내가 들이쉬는 숨결 자체는 나에 대한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직접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종속성—우리의 종속성과 모든 피조물의 종속성—이 시편의 핵심이자 요점이다.

아름다운 문체로 시편 작가는 모든 피조물의 모습을 엮어 나간다. 이러한 영상의 융단을 통해 신화적 바다 괴물이 살던 원시적 바다로부터 우리가 사는 현시대까지 '여행'을 한다.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은 서로 도우며 상호 관련된 생존체계를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많은 시편이 그러하듯이 이 시편도 고대 신화에 문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시편 작가는

무질서의 용이 멸망하고 그래서 질서있는 세상이 출현한다는 바빌론의 창조설화를 잘 알고 있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말하고 있다. 이 시편은 태양신 아톤(Aton)에게 바치는 찬미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집트 인들에게 태양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브리 전통에 충실한 시편 작가는 하느님께서 태양을 지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께 예속되어 있음이 강조되고 있으며 마지막 몇 행에서는 시편 작가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이러한 종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피조물의 생사는 완전히 하느님의 돌보심과 현존에 달려 있다.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기도 안내 **창조적 에너지**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5쪽)
위의 시편을 천천히 읽는다. 나의 관심을 끄는 특별한 영상이 나의 의식 안에 떠오르게

한다.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고 상세히 보도록 한다. 나의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그러한 영상이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서서히 그러한 영상 속에 들어가 바람이 되거나……, 샘……, 나무…… 또는 그 동물 중의 하나가 된다.

내가 택한 영상의 생명체 안으로 들어간다. 이 생명체의 전망 안에서 다른 피조물을 바라본다.

그 영상과 나를 내신 하느님의 창조적 에너지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 하느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나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다음 기도로 끝마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시편 19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 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 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 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사옵니다.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 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준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달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 주시고
그 손아귀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해설

자신이 방금 이상한 나라에 도착한 것처럼 상상해 보라.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물어 볼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걸어 오는 말도 이해하지를 못한다. 맥이

풀리고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나 어렵게 고생해서 마침내 내가 묵을 호텔방에 도착하여 생각해 보니 말로 하지 않고서도 의사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의사교환은 미소나, 어깨를 으쓱 올리는 몸짓이나,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등의 별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답답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환대해 주고 길 안내를 해주었으며, 이해해 주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서로 웃으면서 기분을 풀었음을 느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안전감마저 느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볼 때 언어란 말이나 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시편 19에서 시인은 하느님의 계시도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우주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다. 자연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이며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는 국적이나 교육, 지위,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쓸 수 있다.

자연이란 보편적인 언어이다. 자연은 하느님의 사랑을 촉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실제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우리가 자연의 말에 귀기울일 때 우리의 참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되고 방향감각을 발견하고 자아 집착에서 벗어남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다.

7절에서 시편은 하느님의 법을 이야기한다. 히브리 인들이 볼 때 율법이나 토라(Torah)는 고립된 법규나 법령이 아니고, 구약성서 모세오경의 설화를 통해 계시된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부르시는 초대인 것이다. 이 설화들은 창조와 죄와 치유와 하느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설화들은 하느님의 법령이 당신 사랑의 선포임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 자신의 역사 속에서-우리의 창조, 우리 죄, 우리의 치유, 하느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심-하느님은 계속 당신 말씀, 즉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자아 전체-우리의 장점과 약점, 우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를 포용할 때 보다 깊은 전체적인 실제를 접하게 된다. 우리가 자아와 하나가 될 때 창조주와 하나가 되며 모든 피조물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완전히 자아를 포기할 때에야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기도 안내 — 장미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장미 덩굴을 상상하시오. 그 뿌리와 줄기, 잎, 꼭대기에 달려 있는 장미 봉오리까지. 그 꽃봉오리는 닫혀 있으며 초록색 꽃받침들로 싸여 있습니다. 모든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상상하십시오.

자, 이제 꽃받침들이 열리고 젖혀지면서 부드럽고 가냘프며 아직도 닫혀 있는 그 속의 꽃잎들을 상상하십시오.

이제 꽃잎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도 일어나는 개화(開花)를 또한 느낍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뭔가 열리고 있으며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장미를 계속 생생하게 그려보면서, 당신은 장미의 리듬이 곧 당신의 리듬이며 장미의 개화가 곧 당신의 개화임을 느낍니다. 장미가 피어나서 빛과 공기를 쐬며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한껏 발휘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봅니다.

당신은 장미의 향기를 맡으며 당신의 존재 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이제 그 장미의 한가운데를 바라보십시오. 그 곳은 그 생명이 가장 강렬한 곳입니다. 거기에 한 영상이 떠오르도록 하십시오. 그 영상은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 바로 드러나고자 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깊으며, 가장 창조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 영상이 무엇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억지로 노력하거나 생각하려 하지 말고, 단지 자연스럽게 그 영상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얼마 동안 이 영상과 함께 머물며 그 영상의 특성을 흡수하십시오.

그 영상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언어적이건 비(非)언어적이건—전할지도 모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인다"면 피조물 하나하나도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한 송이의 장미도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기도시간이 끝날 때 당신 안에 있는 장미로 하여금 위의 시편을 노래하게 하시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셋째 주, 다섯째 날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전 날 저녁에 다음 독서를 통해 기도를 준비한다(욥 38-39).

해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욥에게 풍자적으로 인사하는 말씀이다.

욥을 상상해 보라. 욥은 건강과 가족과 안정된 생활 등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를 돕고자 한 친구들의 노력은 오히려 커다란 혼란만 낳고 말았다.

욥은 신심 깊은 사람이지만 속이 들끓고 화가 나서 괴로워하고 있다. 욥은 자기의 인생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모두 파탄에 빠지고 때로는 절망에 허덕이고 있음을 깨닫는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인간적인 고통과 한계 상황에 대해 하느님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욥은 질문한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요?"

우리도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외쳐댄 적은 없는가?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지주를 이루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때들이 가끔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환멸일 수도 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제 하느님이 질문하실 차례다. 하느님은 욥에게 '기운'을 차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느님은 사정 봐주지 않고 욥에게 자연에 대한 질문과 세상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신다. 하느님의 질문은 완전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움과 아이러니와 꾸짖음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욥의 딜레마는 전망을 갖게 된다.

사실 하느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뜻을 따지는 자 누구냐?" 이 자리에서 창조주가 누구이고 피조물이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닌가?

기도 안내 — 욥의 마음 속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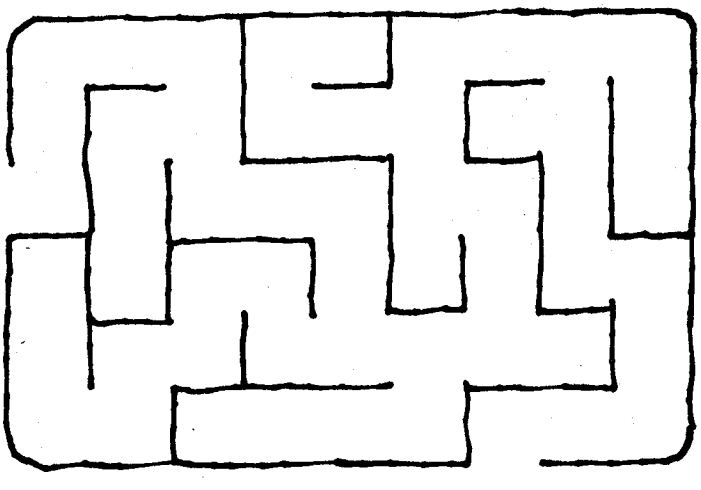
+ 기도 방법(묵상 독서 : 29쪽)

욥의 마음과 정신 속에 들어가 욥이 느낀 혼란을 그대로 느끼도록 한다. 욥기 38장과 39장을 천천히 읽는다. 주기적으로 독서를 중단하고 욥기의 말이나 구절이 내 자신의 체험의 영역 안에서 공명하도록 한다. 하느님을 찾고 그리워하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응답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아무것도 나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않게 하소서



기도안내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의 창조적인 사랑과, 내가 하느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신비 앞에서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느끼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반복기도 : 30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영적일기를 읽으면서 나의 그동안의 기도를 반성한다. 깊이 감동을 받아 기쁨과 감사와 경외심을 느꼈던 기도나 전혀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그때 했던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연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특별히 그동안 간구했던 은총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특별히 깨닫도록 한다.

넷째 주, 첫째 날

옹기장이의 선택

로마 **9, 20-21**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느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겠습니까?

해설

자신이 옹기장이 작업장의 선반에 놓여 있는 그릇이라고 상상한다. 이 선반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다른 그릇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마치 생전 처음 보듯이 자신이 다른 그릇들을 새롭게 주시하고 있음을 느낀다.

둘째 선반에 놓여 있는 아주 우아한 그릇이 바로 나의 눈에 들어온다. 그 그릇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고운 하얀 진흙으로 빚어진 것으로 티끌만한 흠도 없는 것 같다.

한구석을 보니 못생긴 조그마한 그릇이 눈에 띈다. 옹기장이가 못생긴 이 그릇을 왜 버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남겨둘 가치가 없는 그릇처럼 보인다.

이 두 그릇을 보며 너무나 큰 차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나서 내 자신을 둘러보며 갑자기 나 자신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 머리털 같은 금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나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겁에 질려서 나의 본질적인 가치와 쓸모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내 안에 뭔가 담아 둘 수 있을까?

완벽한 그릇을 보고 시기심이 생긴다. 왜 옹기장이가 나를 이렇게 못 만들었을까? 나를

만드신 날, 몸이 불편하셨는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가?

옹기장이를 기억한다. 그의 부드러운 얼굴과 사랑스러운 눈과, 진흙덩이를 떼내서 반죽하여 빚으실 때의 가느다라면서 능란한 그의 손가락을 다시 바라본다. 선반 위 내 자리에서 그분을 몇 년 동안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항상 그는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진흙을 '빚어 만드신다.'

완벽한 그릇에 쏟으신 사랑만큼 못생긴 그릇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는 완벽한데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일까? 금이 간 그릇이긴 하지만 나도 어딘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결국 나의 가치는 나의 완전한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잘 알게 되었다.

기도 안내

순종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자유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기꺼이 "예"하며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해설을 천천히 읽는다. 자신이 깨어졌다는 것을 방금 발견한 그릇으로서의 나 자신을 상상해 본다. 그릇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듯이 똑같은 질문을 나 스스로 해본다.

하느님의 지속적인 창조와 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자유롭게 내 자신을 맡기겠다는 나의 소망을 발하며 기도를 끝마친다.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둘째 날 — 불 속에서

출애굽기 3, 1-6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뵙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해설

모세는 광야에 나와 있다. 그의 여정은 그의 마음처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미디안 땅에 안정된 기반을 잡고 있었지만 그 곳에 마음을 붙이지는 못했다. 그가 마음 속에 느끼는 소외감은 그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에 잘 나타난다. 게르솜(Gershom)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라는 뜻이다.

모세가 겪은 소외감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과 흡사하다. 그의 갈등은 본래의 자아와 피상적인 자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이면서 그 곳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 그는 자기가 자라난 이집트의 궁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인 히브리 백성과도 갈라져 있다. 히브리 인의 핏줄이었던 그를 이집트

여인이 강물에서 구해 주고 자기 아들처럼 길렀다.

그는 누구인가? 그의 고향은 어딘가?

다행히도 그는 양치는 목자로서 고독하게 지내야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가 계속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타면서도 태우지 않는 불꽃이었다. 모세는 그 불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자기가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닫는다.

산기슭에서, 활활 타는 양심의 떨기 앞에 서서 하느님의 현존에 마음의 문을 연다. "예, 말씀하십시오."

모세가 하느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순간, 하느님은 그를 힘껏 안아 주신다.

이러한 포옹을 통해 모세는 환영을 받으며 고향에 들어 서게 된다. 이 고향은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모세이다. 이러한 사랑을 만나자 모세는 그 사랑에 압도된다.

하느님의 현존을 발산하는 그분의 '얼굴'을 모세는 거의 감당할 수 없었다.

기도 안내 — **불타는 떨기 앞에서**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자유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기꺼이 "예"하며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나 자신을 모세로 상상한다. 모세가 느꼈던 고독감과 실향의 아픔을 나의 체험과 합치시킨다.

나의 정체와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나의 질문들이 모세의 질문들과 같음을 깨닫게 된다.

모세와 함께 불타는 떨기를 만난다. 불을 응시한다. 활활 타는 불빛을 생생하게 연상하며 강렬한 열기를 느낀다. 떨기를 태우지 않으면서 가지들 사이로 치솟아 타오르는 불꽃이 내는 소리를 듣는다.

나도 모세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하고 하느님께 응답하는 자유를 내 안에 갖고 있는가?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창세기 22, 1-18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야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 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 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하고 나서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하느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 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 곳을 야훼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들 한다.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바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네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해설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느릿느릿 힘들게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의 눈은 긴장되어 있으며 눈물이 고여 있다. 감히 하늘을 올려다 보지도 못하는 양 땅만 내려다 보고 있다. 불타는 숯을 담은 까만 불통을 메고 있으며, 허리띠에는 칼이 보인다.

어린 소년이 그 노인의 곁에서 묵묵히 걷고 있다. 소년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나무짐이 얹혀 있다. 나무가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발걸음이 불안정하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 한다. 소년의 얼굴에는 당황하고 두려운 빛이 역력하다. 소년은 왜 이렇게 짐을 메고 산을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버지를 쳐다본다.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사악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식 보기를 포기했으나,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의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실현되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늙어서 아이를 가지게 된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늦자식'에 대해 희열을 느꼈다.

아브라함은 한 차원 다른 기쁨을 더 느끼게 되었으니,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악은 장래의 보증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자기 안에서 시작하신 일, 즉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형성되고 통일된 민족을 일으키는 일을 이사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다.

아브라함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이 이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다. 아브라함의 존재 전체가 역설적인 충격으로 비틀거린다. 하느님께서 이사악을 보내 주셨는데, 이제 그의 죽음을 요구하시고, 그나마 아브라함의 손으로 죽이기를 바라시다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서 있다. 최종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요구에 흔쾌히 순응하여, 전혀 종잡을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예상과 합리적인 예측을 팽개칠 만한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을까?

불행히도 이 설화는 보통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 주는 한 예화로 제시되는데 그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시대에 일반화되어 있던 어린이 희생제사를 반대하는 주장에 그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설화가 특히 의미깊은 것은 주지의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도약하는 본보기 내지 표본이 되는 철저한 개인적인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체험은 성숙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핵심을 이루는 '순종'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목적이 하느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서둘러 이사악을 구하시고 사태가 다시 원상 복귀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브라함도 달라졌고 이사악도 달라졌다.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을 때, 그들을 통해 성성(聖性)과 완전성(完全性)을 향한 인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창세기다.

아버지가 극진히 아끼는 이사악이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요한 19, 17)

기도 안내

자유로운 선택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자유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기꺼이 "예"하며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나 자신을 하느님의 지시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상상한다. 이 설화를 더 자세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나의 모든 오관을 동원하여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간다.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동요를 특별히 느낀다.

나의 반응은 어떠할까? 나도 하느님의 지시에 믿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을까?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필립비 3, 7-11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해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해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해설

나의 남편이나 부인 혹은 친구와 같이 나와 기탄없이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마음 속에 떠올린다. 어떻게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어떻게 소개하겠는가?

출생지나 생년월일과 같은 사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만한 적절한 단어는 없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할 때에야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사랑의 관계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항상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 바오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제와 경직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하여 우리의 자유도 증가한다.

필립비서 3장을 보면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다. 바오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싶어한다.

우리가 이 성서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오로의 삶이 율법에 바탕을 둔 관계에서 친밀한 사랑에 기초를 둔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율법주의에서 자유로 넘어갔다. 진정한 인간관계라면 모두 이렇게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발전하며 도약하는 것이다.

바오로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의 체험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결합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도 안내 **그리스도와의 대화**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자유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예"하며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29쪽에 있는 영적일기 기록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다. 예수님께 대한 나의 가장 진실한 느낌을 충분히 표현한다.

예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며, 이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듣는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다섯째 날 — 희망

로마 8, 18-25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해설

우리에게 종말이 닥쳐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시작임을 발견하게 된다.

자녀들이 우리 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어른이 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우정이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우정의 관계에서 상호 기쁨을 주는 우정의 관계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본당이나 신자들이 돌이킬 수 없이 산산이 분해되버렸다고 생각할 때, 다양한 주장 속에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지도력에 바탕을 둔 공동체가 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세상이 핵무기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핵무기에 대한 의식과 그에 대응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한다.

진정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달하며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바오로의 서간을 통하여 하느님은 우리의 미완성된 출생 과정을 우리가 완성해 가도록 초대하신다. 하느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라고 도전하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우리는 인내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시공(時空) 안에서, 비록 부수어지고 제한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 시대의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탄생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고통의 도전을 받지만,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임을 굳게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내적인 실재와 힘이 방출되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야 한다.

불안정한 삶 속에서, 바오로는—예수님도—희망을 갖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이 희망 속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기도 안내 — 치유의 기도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자유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기꺼이 "예"하며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반복기도 : 30쪽)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아프게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의 정체를 확인한다.

나의 현명한 스승 바오로가 위의 성서 구절을 통해 나에게 이르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바오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말을 나의 고통과 연관시켜본다.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새겨 들으며, 나의 고통을 열어 보이고 창조적이며 희망에 가득 찬 하느님의 사랑의 치유능력을 받아들인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넷째 주, 여섯째 날 반복기도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자유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기꺼이 "예"하며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반복기도 : 30쪽)

기도의 준비로, 지난 주간의 영적일기를 읽으면서 나의 그동안의 기도를 반성한다.

마음 속 깊이 기쁨과 감사와 경외심을 느꼈던 기도나 전혀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기도 또는 고통스럽게 느꼈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원래 하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연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특별히 내가 그동안 간구했던 은총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도록 한다.

이사야 45, 9-13

아! 네가 비참하게 되리라.
자기를 빚어 낸 이와 다투는 자여.
옹기그릇이 옹기장이와 어찌 말다툼하겠느냐?
옹기 흙이 어찌 옹기장이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솜씨로군"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제 아비에게
"왜 이 모양으로 낳았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어미에게 어찌
"이 모양으로 낳느라고 그 고생을 하였소?"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빚어 만드신 거룩하신 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 자식들의 일로 너희가 나를 심문하는 것이냐?
이 손으로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냐?
땅을 만든 것은 나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해 놓은 것도 나다.
이 손으로 내가 하늘을 펼쳤다.
그 모든 별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다.
내가 그를 일으켜 승리하게 하였다.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닦아 준 것도 나다.
그가 나의 도읍을 재건하리라.
포로 된 내 백성을 해방시키리라.
대가도 선물도 아니 받고 해방시키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해설

원시인들은 평온하며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니라 바람과 홍수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보다 극적인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보았다.

하느님께서는 자연 속에 현존하시듯이 우리의 역사 속에도 현존하신다. 그러나 자연의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역사의 하느님과 만나려면 반성과 역사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출하는 힘과 에너지도 극적인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심을 깊이 믿는 것이 요구된다.

오늘 나오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세계적 상황과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활동하심을 똑바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고레스를 임명하신 하느님의 조처와 손길이다. 믿기 어렵지만 고레스는 이교도로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의 오랜 귀양살이가 끝날 때 이스라엘을 재건한다. 이 대목은 지난 날 하느님께서 얼마나 충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를 히브리 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으며, 계속 그들에게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권과는 다르게, 히브리 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현존하여 계셨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심은 일차적으로 이집트의 종

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생생한 기억에서 나온다. 그들은 이 사건을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홍해를 가로 건너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신앙적으로 해석하였다.

야훼 안에서 역사의 하느님과 자연의 하느님은 하나로 합일된다.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의 하느님은 동시에 그들을 뽑힌 백성, 축성된 민족으로 새롭게 키워 주신 자연의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자유는 하느님께서 옛 히브리 백성을 위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혼란스러운 사건들—불, 홍수, 바람—속에 현존하여 계심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도 하느님께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 하느님의 구원 능력에 순종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펼치시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기도 안내 **현대를 위한 기도**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자유의 은총, 즉 오늘의 세계 속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의 성서 구절을 읽고 성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게 한다. 조용히 뉴스 잡지나 신문을 넘기면서, 신앙의 눈으로 머리말 기사, 기사 제목 및 사진들을 본다. 신문이나 잡지를 숙독하면서 간간이 내가 좋아하는 성서 구절을—

예로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도다"나 아니면 "하느님께서 내 도시를 다시 세워 주시리라"
—집어넣어 음미한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히브리 11, 17-19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사악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사악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느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사악에게서 너의 후손이 퍼져나가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를테면 죽었던 이사악을 되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해설

내가 처한 환경에 의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한 임무나 일, 계획을 떠맡게 되었다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모든 것이 적절하게 보이며 때가 무르익은 것 같다. 아마도 집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거나,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거나, 학교로 돌아가거나, 책을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인생의 진로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서 나 자신이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 일이라고 주장한다. 인생의 진로를 철저히 받아들였기에 그것은 하느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활동하시는 외적인 표현이 된다.

나의 진로를 따라 시작은 했지만, 장애물이 돌출하고 출구가 막힌 것처럼 보인다. 수업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고 직업 선택은 한계가 있다.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간다. 다소 뒤로 주춤 물러서거나

속도를 늦출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한다.

나의 꿈을 믿기에 참고 견디며, 나에게 필요한 재능은 다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나의 꿈이 성취될지 알 도리가 없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이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란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지나칠 정도로 과용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성적인 동의 정도로 낮추어 보며, 신앙을 머리의 수준에서 마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신앙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신앙 표본의 한 예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들고 있는데, 그의 신앙은 외아들 이사악의 목숨을 요구하신 하느님께 순종할 때 잘 나타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 약속이 걸려 있는 아이의 목숨을 하느님께서 왜 취하시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에서 역설적으로 흘러 나오는 죽음과 어둠의 세력 속에 빠지게 된다.

어떤 것들은 세월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들도 각자 '이사악'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과 사물로서,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인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길 때에야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와 힘이 발휘된다.

희생되는 이사악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신비의 상징을 보게 된다.

기도 안내

이사악과의 만남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자유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기꺼이 "예"하며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묵상 : 25쪽)

다음과 같은 점을 숙고한다 :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자식인가? ……직업인가? …… 꿈인가? ……건강인가?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바라보고 안아 주었듯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바라본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어떤 것인가?

하느님께 '나의 이사악'에 관해 말씀드린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느님께 말씀드린다. 그것이 하느님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는 하느님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에게 이르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의 이사악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이사악을 다시 돌려받는다.

만약 나의 이사악을 봉헌할 수 없다면 기꺼이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히 부탁한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셋째 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됨

I 고린토 9, 19-23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다 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다 인처럼 되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하느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해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됨'－이 표현은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바오로의 자세를 정확히 말해 주고 있다. 바오로는 그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되었다.

이 말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되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 구실을 만들어 줄 때가 많다.

물론 바오로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주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책임을 결코 떠맡을 수 없다.

오히려 바오로의 주장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 보는 내적인 마음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되 각자가 처한 특이한 처지에 따라 계시해 주신다는 바오로의 깊은 확신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께서 바오로의 삶을 너무도 철저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는 엄격한 유대의 율법마저 무시할 만큼 자유롭고 확신에 찬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더 이상 율법이 그를 속박하거나 지배하지 못했으며,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율법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율법의 원래 의도는 사람들을 돕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바오로가 볼 때 율법의 절대적인 가치는 항상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다.

모든 가치의 -개인적 가치든 민족적 가치든 율법적 가치든- 궁극적 의미는 그 가치가 사랑의 율법에 얼마나 이바지하며 열매를 맺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고 결정된다.

바오로는 율법 속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바오로는 율법을 철저히 배격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과도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 바오로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었으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 맞게 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직무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랑의 표본이 되고 있다. 바오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바오로와 같이 우리도 자신을 열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바오로의 '하인 정신'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신분을 취하신'(필립 2, 7) 그의 스승, 예수님의 정신을 반영해 주고 있다.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 대전에서 과감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내심기도 : 27쪽)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스럽고 겸허하게 바라보고 계시도록 한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사랑의 종이 되셨음을 깨닫는다.
예수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연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다섯째 주, 넷째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필립비 1, 21-26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 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 주고 기쁨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설

바오로는 감옥에서 필립비 인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 찬 편지를 썼다.

어느 유대 인이나 마찬가지로 바오로에게도 투옥이 되었다는 것은 죽을 몸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투옥이란 옛부터 죽음을 의미하였다. 감옥은 대개 창문이 없는 방이었으며, 천정에 출구가 있었고, 그 출구를 통해 죄수를 투옥시켰다. 감옥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무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여기서 바오로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재판은 십중팔구 사형일 것이다.

이 편지는 자기 속 깊숙이 들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명상하며 쓴 글이다.

이렇게 명상하는 가운데 바오로는 생명의 모순들과 대처하며 고심하고 있다.

바오로에게 있어서 삶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뜻하는데, 그것은 그

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바오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궁극적으로 삶을 뜻하며, 그것은 죽음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바오로는 자신의 욕망과 자기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를 생각하며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면서 하느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맡길 때 바오로는 깊은 불편심의 자유를 발견하였다.

전에는 모순으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다 이해되면서 역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보여 준 것은 사랑이었다.

바오로는 죽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실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바오로의 전체적인 논증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이다. 죽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인의 공동체와 함께 있고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바오로는 잘 알고 있다.

'사슴의 외침' 이라는 아름다운 기도가 바오로의 기도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다: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앞에도 계시며, 내 뒤에도 계시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내 밑에도 계시며, 내 위에도 계시네.
내 오른쪽에도 그리스도, 내 왼쪽에도 그리스도,
자리에 누울 때에도 그리스도, 앉을 때도 그리스도,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
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에도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눈동자 속에도 그리스도,
내 말을 듣는 모든 귀 속에도 그리스도 계시네."

기도 안내 감옥에 갇힘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 대전에서 과감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바오로와 함께 감옥에 떨어지고 있는 상상을 해 본다. 감옥으로 떨어지면서 그 감옥의 깊이를 체험한다. 점차로 어둠과…… 찬 습기를 실감한다. 고독감과 공포심이 나를 엄습한다.

나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음을 깨닫는다. 이 쇠사슬은 무엇인가? 나를 얽매고 감옥에 가두는 모순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순들은 장수나 단명에 대한 걱정인가? 아니면 건강이나 병, 재산이나 가난, 명예나 불명예에 대한 걱정인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인생의 딜레마가 무엇이든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고 예수님께 부탁한다.

'사슴의 외침'을 서서히 기도하며 나의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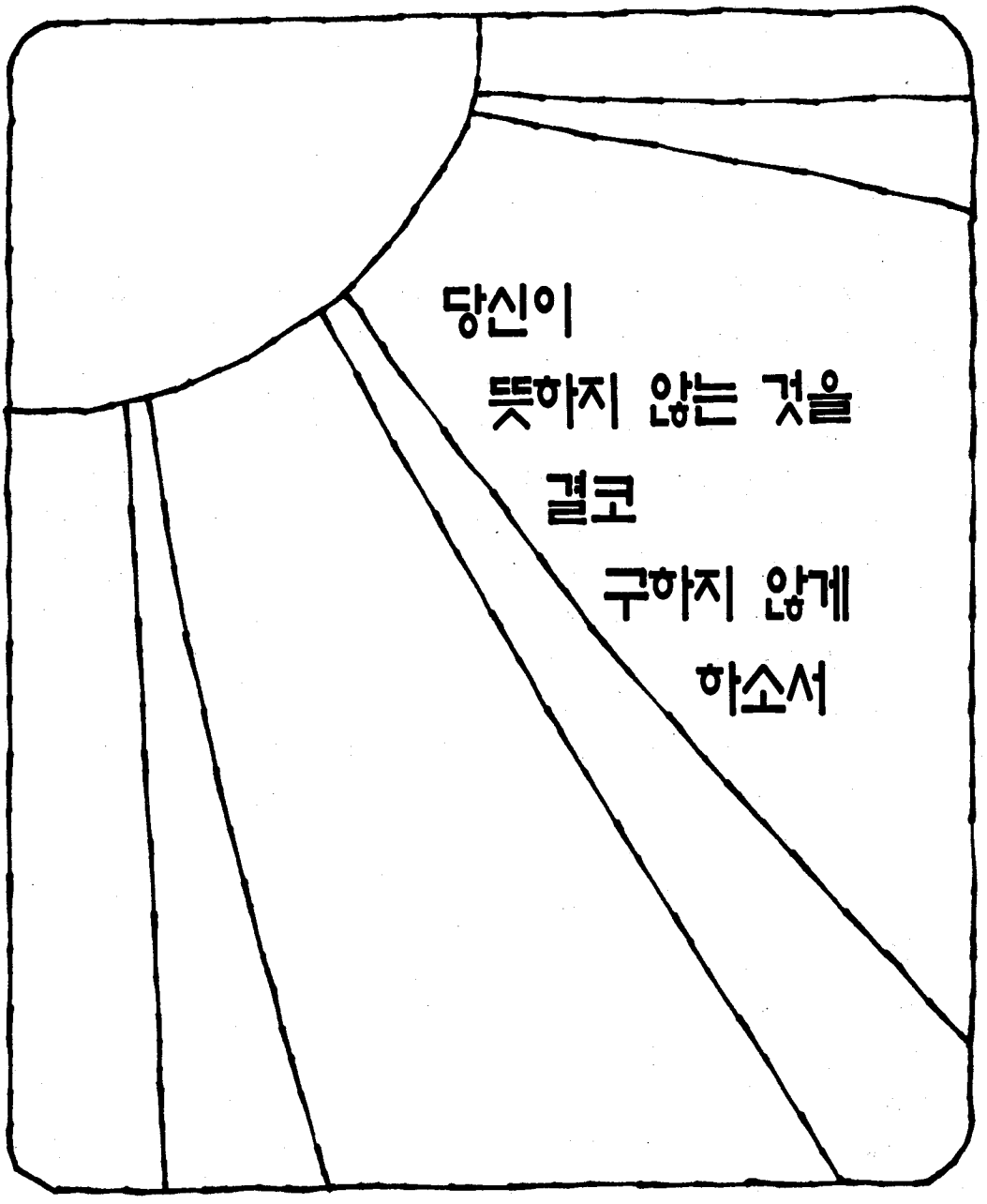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 대전에서 과감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반복기도 : 30쪽)
기도의 준비로, 지난 주간의 영적일기를 읽으면서 나의 그동안의 기도를 반성한다. 마음 속 깊이 기쁨과 감사와 경외심을 느꼈던 기도나 전혀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기도 또는 고통스럽게 느꼈던 기도를 뽑아서 반복한다. 그 대목에 대해 제시된 방법에 따라 기도하며 마음을 열고 나에게 이르시는 하느님 말씀의 특별한 의미를 깨닫도록 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특별히 내가 그동안 간구했던 은총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도록 한다.


당신이
뜻하지 않는 것을
결코
구하지 않게
하소서

다섯째 주, 여섯째 날 신랑

요한 3, 22-32

그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그 곳에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 한편 살림에서 가까운 애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아서 요한은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 인 사이에 정결 예식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 제자들은 요한을 찾아가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강 건너편에 계시던 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바로 그분인데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일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며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27절).

27절은 이 성서 대목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다. 그들은 나방이 불빛에 모여들 듯, 목마른 자들이

샘에 모여들 듯이 그분에게 모여들고 있다.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는 동양적인 혼례식의 풍부한 표상을 통해 멋지게 잘 표현되고 있다.

결혼이라는 표상을 통하여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 관계를 상기하게 되는데,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너무도 철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친밀한 혼인의 일치로밖에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없었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이 신랑이요 이스라엘이 신부로 표현되고 있으며,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이며 요한은 자기가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약시대의 표상 아래서는 각자가 하느님께서 지정해 주신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수께서는 신랑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끌어모으는 중심 인물이다. 예수님은 신약의 중심 인물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집단의식을 자신의 인격 속에 지니고 계시며 대표하신다.

요한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관습상 신랑 들러리의 역할을 아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신랑 들러리로 뽑힌 사람은 보통, 신랑과 제일 친한 친구다. 예수님 시대에 신랑 들러리로 뽑히는 영광은 오늘날 보다도 훨씬 명예로운 것이었다. 신랑 들러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고 총책임자로서 잔치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신랑 들러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까지 신부방을 지키는 것이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 다음에야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요한의 임무는 자신이 이 순간을 위해 키워 오면서 준비해 온 공동체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구약의 계약을 맺을 때 모세가 맡았던 역할과 같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모세가 예언하고 예시해 주었던 것들이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은 결연히 당신 백성을 당신 품에 꼭 껴안아 주신다.

예수의 길을 준비함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마친 요한은 뒤로 물러난다. 요한은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로부터 예수님께 향하도록 안내한다.

누가 물어보든지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 저는 듣나이다.

그분은 빛, 저는 깨우침을 받나이다.

그분은 말씀, 저는 그 말씀 듣는 귀이니다"(아오스딩).

나는 신랑 들러리요, 예수님은 신랑이시니 나의 "기쁨이 가득 찬다"(29절).

기도안내 **그분의 빛 속에서**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열망하는 은총과,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과 영예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내심기도 : 27쪽)

나 자신을 밝게 타오르는 촛불로 생각한다. 오랫동안 타올랐기 때문에 나의 불꽃은 강렬하며 따스하고 아름다운 빛을 던진다.

등대에서 비춰오듯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난다. 그 빛은 강렬한 빛을 발하며 공간 전체를 속속들이 파고들어 따스하게 해준다.

나 자신도 그 빛 속으로 빨려들어감을 느낀다. 나의 불꽃은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그 광채 속에서 긴장을 풀고 편히 쉰다. 그 빛의 광채 속에 포근히 안기어 머문다.

빛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한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되풀이해서 부른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첫째 날 부르셨습니까?

사무엘 상 3, 1-11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 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 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 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하고 대답하면서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하고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야훼께서 세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일러 주었다. 사무엘은 돌아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 앉으리라."

해설

하느님은 때로는 잔잔한 미풍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조용한 밤에도 말씀하시고…… 어

린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말씀하신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사무엘은 자기보다 앞서 간 예언자들,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사무엘은 선배 예언자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이 탁 트이고 거침없는 마음으로 응답하였다. "주님, 부르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내심 속에 목소리가 있으며, 이 목소리는 본연의 우리가 되도록 부른다. 본연의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이다.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 부르셨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한 나를 확인해 주는 특별한 은총을 과감하게 믿으며, 그 은총을 용기있게 활용하는 것이다.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하느님을 체험한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엘리-공동체 대표자-가 필요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사무엘처럼 우리도 밤중에 휴식을 취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목소리를 귀여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도 안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심**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열망하는 은총과,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과 영예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관상 : 26쪽)

거의 수면 상태와 같은 긴장이완 상태에 몰입한다. 사무엘처럼 하느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가? 본명인가? 아니면 별명인가? 아니면 애칭으로 부르시는가?

나를 부르실 때 하느님 목소리의 감도는 어떠한가? 화급한 목소리인가, 부드러운 목소리인가, 아니면 부탁하는 목소리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연다. 마음으로 응답한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루가 1, 26-38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해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수태 고지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함으로써 마리아는 그

리스도의 첫번째 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루가는 사도직무를 수행하던 후반기의 마리아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긴 분이라고 칭찬하셨다(루가 8, 21).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흔쾌히 동의하는 순간, 인류의 온갖 희망이 실현되었다. 마리아는 두 가지 계약이 서로 만나는 합치점이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느님의 계약이 물러나고 그리스도와 당신 교회가 맺은 계약이 출현한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리아 안에서 잉태되었으며 말씀 속에서 만물이 잉태되었다.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소명으로 받은 일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행하였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보였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는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마리아의, 아들의 마지막 외침 속에 함축된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는 철저한 포기의 정신을 간파하게 된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가 23, 46).

기도 안내 **마리아와 함께**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열망하는 은총과,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과 영예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 : (관상 : 26쪽)

나 스스로를 마리아라고 상상한다. 위의 성서 대목을 예수의 수태 고지 대본으로 삼아 드라마 속으로 들어간다.

나 스스로가 마리아의 집에 있다고 그려본다. 그때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고 깜짝 놀란다. 놀라움……, 두려움……, 혼란……, 경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응하는 마리아의 체험에 나 자신을 연다.

마리아와 함께, 나도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영에 순응한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지혜 9, 1-12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당신의 지혜로 인간을 내시어
당신 손에서 생명을 받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당신 왕좌에 자리를 같이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들 축에서 빼놓지 마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 여종의 자식입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며
정의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과연 인간의 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에게 당신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면 그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 백성의 왕으로 뽑으셨고
당신의 아들 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산 위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당신이 계시는 도성에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거룩한 장막을 본딴 것입니다.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당신의 율법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빨리 내려 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왕좌로부터 보내 주소서.
그리하여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시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소서.
지혜는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하는 일을 현명하게 이끌어 줄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 뜻에 맞을 것이며
당신 백성을 의롭게 다스림으로써
나의 아버지가 물려준 왕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설

"지혜를 얻으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쉽게 지혜를 찾을 것이다. 지혜는 바로 네 문간에 와서 앉아 있을 것이다"(지혜 6, 14).

"지혜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1, 6). "지혜가 그대의 친구가 되면 모든 좋은 것을 그대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7, 11). "지혜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7, 10), "지혜는 그대에게 한량없는 보물이 될 것이다"(7, 14). "지혜를 통해서 그대는 하느님의 벗이 된다"(7, 14).

"지혜는 아름다운 여인이며"(잠언 8, 1-21), "하느님의 선하심을 비춰 주는 거울이다"(지혜 7, 26). "지혜는 너의 위로요, 조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8, 9).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지혜가 찾아올 것이다"(7, 7).

그녀의 이름은 지혜다.

구약의 지혜문학을 보면, 지혜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하느님 능력의 여성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지혜는 야훼께서 창조하실 때 야훼와 함께 있었다(잠언 8, 22-31).

야훼께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제반 인생살이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 쉽게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을 얻는다는 것이다.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침착한 마음으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며 도덕적인 자세로 인생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별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창조사업을 계속하시는 하느님의 동업자가 된다.

지혜서 9장 1~12절은 왕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이다.

기도 안내 **지혜롭게 말하기**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하느님의 계획과 지혜가 성취되기만을 바라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영적일기 : 29쪽)

지혜를 인간으로 생각한다. 지혜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지혜는 어떻게 생겼을까?

- 나이가 많은가? 어린가?
- 어떤 옷을 입었는가?

……지혜에 대해 나는 무엇을 아는가?

- 지혜의 집은 어딘가?

– 지혜는 얼마나 멀리 여행을 했는가?
– 지혜가 체험한 것들은 무엇인가?
……지혜와 나의 관계는 어떤가?
–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 현재는 어떤가?
나는 지혜와 글로써 대화한다.
지혜가 내게 말하고 나는 응답한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며 펜에서 자연스럽게 글이 흘러나오게 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서를 다시 읽는다.
주의 기도로 기도를 마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로마 **8, 31-39**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 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해설

'우리 배심원은 피고가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법정의 무죄선언은 법정에 끌려온 자들에게 일시에 무한한 기쁨과 안도감을 안겨

준다. 배심원들의 이런 선언과 더불어 피고인은 무죄로 판명되고 석방된다.

우리의 마음도 기뻐할 만하다. 우리에 대한 '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우리는 무죄임이 드러났으며 석방되었다.

이렇듯 놀라운 무죄선언은 바오로가 로마 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실려 있는 사랑의 찬가 속에 깔려 있는 확신이다.

이 성서 구절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재판관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인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31-35절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무죄로 풀어 주셨음을 확신한다. 어느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럴 자격과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뿐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아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처럼 행세하시지 않으신다.

비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의 이유를 제기하시지만,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서 소청을 드리며 하느님께 우리를 무죄로 봐주십사, 즉 자유를 주십사 하고 간청하신다. 그 자유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유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골로 1, 15).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도 하느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세 1, 27).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며, 하느님의 아들 딸답게 사랑으로 하느님께 응답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I 요한 4, 19) 때문에 사랑의 원천은 하느님이시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 사랑은 우리 실존의 핵심이며 숨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즉 하느님으로부터 도저히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러한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다. 유혹이나 고통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유혹은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의 고통과 유혹의 한 부분인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때문에 친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무언들 거절하시겠는가?

기도 안내 **예수님과의 대화**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관상 : 26쪽)

예수께서 내 곁에 바싹 앉아 계신다고 상상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친구로서 내 앞에 계신다.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과, 나의 가장 큰 기쁨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큰 소리로 말한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다. 즉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천천히, 귀기울여 듣는다.

대화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되풀이하여 부른다.

예수님과 함께 주의 기도를 바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다섯째 날　　그리스도 : 하느님의 충만하심

에페소 3, 14-21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박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느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해설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무심코 뵌 적이 있는가? 아마도 부모님의 아주 부드러운 얼굴 모습이나 눈물이 괸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마치 은밀한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온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바오로를 만난 기분이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과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바오로의 개인적인 투쟁도 그의 기도에 반영되고 있다.

바오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나 유대 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에 훨씬 가까운 자세였다. 바오로가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유대 인과 이교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것은 일치를 위한 초교파적인 몸짓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것은 바오로가 너무나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취한 자연스러운 자세였을지도 모른다.

기도를 통해 바오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이 구절들의 친밀한 어투는 바오로와 하느님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스도교가 탄생함으로써, 하느님의 부성(父性)을 통해 모든 사람은 아무 거리낌없이 친근하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세는 신의 부성을 전적으로 창조적 행위에만 국한시키려 들던(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거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막아왔던) 이전의 사고와는 다른 것이다.

바오로의 기도는 완전을 위한 기도이다. 바오로가 살던 세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거의 같은 것이었다. 그 당시는 옛 것이 사라지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새 것이 탄생하는 과도기적인 시대였다. 많은 제도들, 즉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종교적 제도들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 당시의 세계는 몰락과 혼돈이 예상되고 있었다.

지금처럼 그 당시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각 개인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혼돈과 싸울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싸운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수선한 세상에 살고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가? 어디에 나의 희망을 두고 있는가?

바오로는 좌절을 잘 알고 있었다. 내적인 갈등도 잘 알고 있었다. 바오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으로(사도행전 9장), 그 자신의 전 인격을 건 자아 중심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개인적인 좌절을 체험하였다.

바오로는 희망을 알고 있었다. 바오로는 예수의 완전함이 그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오로는 자기 제자들의 '숨겨진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화되도록 열렬히 기도한다.

+ 기도 후 반성

이 기도 중에 알게 된 모든 느낌, 체험 또는 깨달음들을 영적일기에 적는다.

여섯째 주, 여섯째 날 하느님께 보내는 편지

기도 안내

+ 매일기도 양식(23쪽)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자신을 가라앉힌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을 분명히 한다.

+ 구하는 은총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은총을 구한다.

+ 기도 방법(반복기도 : 30쪽)
여러 차례의 기도시간을 통해 지난 여러 주간 동안의 나의 영적일기를 다시 읽는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기도와 나의 생활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지 알게 된다.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 하느님께 편지를 써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한다.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부 록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서 구절과 주석은 원리와 근본 운동의 관건이다.

하느님의 사랑-당신의 사랑이 온 누리에 흘러 넘쳤나이다

시편 139, 1-18 ····· 40

이사야 43, 1-7 ····· 45

I 요한 4, 7-8. 18-19 ····· 49

출애굽기 19, 3-4 ····· 52

시편 103 ····· 55

하느님의 선하심-내 영혼이 당신의 좋으심을 즐기게 하소서

호세아 11, 1-9 ····· 64

루가 12, 4-7 ····· 68

이사야 49, 14-16 ····· 71

시편 136 ····· 74

시편 8 ····· 79

피조성-저의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향하도록 인도하소서

예레미야 18, 1-6 ····· 86

욥기 1, 21 ····· 89

시편 104…… 92
시편 19…… 98
욥기 38－39…… 103

자유／무관심－아무것도 나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않게 하소서

로마 9, 20－21…… 109
출애굽기 3, 1－6…… 112
창세기 22, 1－18…… 115
필립비 3, 7－11…… 119
로마 8, 18－25…… 122
이사야 45, 9－13…… 128
히브리 11, 17－19…… 132
I 고린 9, 19－23…… 135
필립비 1, 21－26…… 138

헌신／현자－당신의 뜻하지 않는 것을 결코 구하지 않게 하소서

요한 3, 22－32…… 144
I 사무 3, 1－11…… 149
루가 1, 26－38…… 152
지혜 9, 1－12…… 155
로마 8, 31－39…… 159
에페소 3, 14－21…… 163

기도를 위한 도움 목록표

하느님의 사랑

시편 139, 1-18 : 나의 역사 속에 계시는 하느님(반성 수련)…… 43

이사야 43, 1-7 :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묵상)…… 47

I 요한 4, 7-8. 18-19 : 하느님을 바라보는 창(반성 수련)…… 50

출애굽기 19, 3-4 : 놀라운 제안(묵상)…… 53

시편 103 : 사랑의 에너지(묵상)…… 58

하느님의 선하심

호세아 11, 1-9 : 사랑과 용서의 체험(관상)…… 66

루가 12, 4-7 : 격려의 편지(묵상)…… 69

이사야 49, 14-16 : 한 어린이의 탄생(관상)…… 72

시편 136 :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만트라)…… 77

시편 8 : 밤하늘(묵상)…… 81

피조성

예레미야 18, 1-6 : 옹기장이의 손(명상)…… 87

욥기 1, 21 : 항복(만트라)…… 90

시편 104 : 창조적 에너지(묵상)…… 96

시편 19 : 장미(명상)…… 101

욥기 38-39 : 내심의 작업(묵상 독서)…… 104

영적 자유

로마 9, 20-21 : 순종(명상)…… 110
출애굽기 3, 1-6 : 불타는 떨기 앞에서(명상)…… 113
창세기 22, 1-18 : 자유로운 선택(명상)…… 118
필립비 3, 7-11 : 그리스도와의 대화(영적일기 기록)…… 120
로마 8, 18-25 : 치유의 기도(묵상)…… 123
이사야 45, 9-13 : 현대를 위한 기도(묵상)…… 130
히브리 11, 17-19 : 이사악과의 만남(묵상)…… 133
I 고린 9, 19-23 : 예수님의 눈동자(집중기도)…… 137
필립비 1, 21-26 : 감옥에 갇힘(명상)…… 140

헌신

요한 3, 22-32 : 그분의 빛 속에서(집중기도)…… 146
I 사무 3, 1-11 :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심(명상)…… 150
루가 1, 26-38 : 마리아와 함께(명상)…… 153
지혜 9, 1-12 : 지혜롭게 말하기(영적일기 기록)…… 157
로마 8, 31-39 : 예수님과의 대화(명상)…… 161
에페소 3, 14-21 : 바오로와 함께 기도하기(묵상)…… 165

성서 구절 색인

창세기
22, 1－18…… 115

출애굽기
3, 1－6…… 112
19, 3－4…… 52

여호수아기
24, 7…… 53

사무엘 하권
3, 1－11…… 149

욥기
1, 21…… 89
38～39…… 103

시편
8…… 79
19…… 98
46, 10…… 28
103…… 55
104…… 92
136…… 74
139, 1－18…… 40

아가서
2, 10－12…… 18～19

지혜서
9, 1－12…… 155

이사야서
43, 1－7…… 45
49, 14－16…… 71

예레미야서
18, 1－6…… 86

에제키엘서
3, 2－3…… 29

호세아서
11, 1－9…… 64

마태오 복음
18, 20…… 33

루가 복음
1, 26－38…… 152
8, 21…… 153
12, 4－7…… 68
23, 46…… 153

요한 복음
3, 22－32…… 144
12, 24…… 153

로마서
8, 15. 26…… 27
8, 18－25…… 122
8, 31－39…… 159
9, 20－21…… 109

고린토 전서
9, 19－23…… 135

에페소서
3, 4…… 29
3, 14－21…… 163

필립비서
1, 21－26…… 138
2, 7…… 136
3, 7－11…… 119

골로사이서
1, 15…… 160

히브리서
11, 17－19…… 132

요한 I 서
4, 7－8. 18－19…… 49
4, 19…… 160

BIBLIOGRAPHY

1. Anderson, Bernard W.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5.
2. Barclay, William. *The Daily Study Bible Serie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3. Barth, Karl. *A Shorter Commentary on Romans.* Richmond : John Knox Press, 1963.
4. Bridges, Robert, ed. *Poems of Gerard Manley Hopki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5. Bright, John. *Jeremiah.*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65.
6. Brown, Raymond E. *The Birth of the Messiah.* Garden City, NY : Image Books, 1979.
7.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66.
8. _____, et al.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8.
9. Caird, G. B. *Saint Luke.* London : Penguin Books, 1963.
10. Cowan, Marian, and John C. Futrell.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 A Handbook for Directors.* New York : Le Jacq Publishing, 1982.
11. Dahood, Mitchell. *Psalms I, II, III.*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66, 1968, 1970.
12. de Mello, Anthony. *Sadhana, A Way to God.* Sain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78.
13. English, John. *Spiritual Freedom.*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74.
14. Ferrucci, Piero. *What We May Be.* Los Angeles : J. P. Tarcher, 1982.
15. Fitzmeyer, Joseph.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1981.

16. Fleming, David.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 A Literal Translation and a Contemporary Reading.* Sain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78.
17. Heschel, Abraham J. *The Prophets.*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2.
18. Jung, Carl G. *Man and His Symbols.* New York : Valor Publications, 1964.
19. Leslie, Elmer A. *The Psalms.* New York : Abingdon Press, 1949.
20. Magaña, José, S. J. A *Strategy for Liberation.* Hicksville, NY : Exposition Press, 1974.
21. Maloney, George A., S. J. *Prayer of the Heart.* Notre Dame, IN : Ave Maria Press, 1981.
22. McKenzie, John. *Second Isaiah.*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Inc., 1968.
23. _____. *Dictionary of the Bible.* Milwaukee : The Bruce Publishing Co., 1965.
24. Orr, William and James Arthur Walther. *I Corinthians.*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Inc., 1976.
25. Pennington, M. Basil. *Centering Prayer.* Garden City, NY : Image Books, 1982.
26. Pope, Marvin H. *Job.*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Inc., 1965.
27. Rahner, Karl. *Spiritual Exercises.*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56.
28. Simons, George F. *Journal for Life, Part One : Foundations.* Chicago : ACTA, 1975.
29. Speiser, E. A. *Genesis.*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Inc., 1964.
30. Thompson, Francis. *The Hound of Heaven.* New York : Dodd, Mead and Co., 1963.
31. Veltri, John, S. J. *Orientations, Vol. I : A Collection of Helps for Prayer.*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79.
32. _____. *Orientations, Vol. II : Annotation 19 : Tentative Edition.* Guelph, Ontario : Loyola House, 1981.

이냐시오 영성생활 지침서

——사 랑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첫번째 책인 이「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편심과 투신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사랑 및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강연중 옮김/192쪽/6,000원).

——용 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두번째 책인 이「용서」는,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첫째 주간과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개인과 인류 전체의 죄스러움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죄와 죄인의 문제를 고찰한다(강구영 옮김/216쪽/6,000원).

——탄 생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세번째 책인 이「탄생」은, 예수님의 성령을 구현시키는 인생 여정에서 각자에게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삶이 지니는 심오한 의미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을 하시는 동안 스스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지상 삶을 관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조순자 옮김/224쪽/6,000원).

——포 기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네번째 책인 이「포기」는,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예수의 전적인 복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관상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어떻게 활용되며 변형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조순자 옮김/216쪽/6,000원).

——자 유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마지막 책인 이「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관상함과 아울러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그분의 비전과 임무를 함께 나누도록 초대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쁨과 현존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조순자 옮김/224쪽/6,000원).

——혜숙이와 박 신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의 저자 박도식 신부가 엮어낸 또 하나의 인생론이자 가톨릭 입문서인 이 책은, 한 젊은 여성과의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으며 종교의 필요성, 신앙과 지식, 인생의 부조리 등 42가지로 분류하여 알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입교를 준비중인 예비자는 물론 가톨릭 교리 전반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박도식 지음/180쪽/3,500원).

——— 그 나라가 임하시며(주의 기도 해설)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 가장 많이 외우는 기도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입으로만 외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 주의 기도를 쉽게 풀이한 해설서(배문한 지음/104쪽/3,000원).

——— 그리스도의 향기

성인이 되는 것은 믿는 이들 모두의 소명이다. 삶의 전부를 바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 전 세계 성인 108분의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고통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위안과 용기를 얻고 성인들의 굳은 신앙과 뜨거운 사랑을 본받아 믿는 우리 모두를 성인·성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성인전(배문한 지음/528쪽/8,000원).

——— 영성생활 시리즈(20권)

'영성생활의 마르지 않는 샘'인 성서의 말씀을 쉽게 묵상하고 남들에게 전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신앙 활성화와 사도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되게 하는 이 책은 신앙생활의 초심자를 비롯하여 하느님으로 알고 섬기려는 이들의 필독서이다(이홍근 지음/ 각권 1,500원 : 세트 구입시 25,000원).

——— 기도의 신학

하느님의 구세사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현존에 응답한 기도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기도의 심리학을 전개하면서 기도가 인간의 실존적 요구에 어떤 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파비오 쟈르디니 지음·전달수 옮김/168쪽/3,500원).

———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

카나다 교회의 신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현대 심리학과 전통적인 영성수련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다루며 특히 사제는 사제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사제다워짐을 분명히 하는 이 책은 사제들과 신학생들의 삶에는 물론, 사제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에밀 브리에르 지음·전달수 옮김/120쪽/3,000원).

——— 예수 기도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며 실제로 사는 것이므로 일상생활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숨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좋은 신심이 될 이 예수 기도는, 언제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사도 성 바울로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도로서 마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다(페르 울로프 스죄그렌 지음·전달수 옮김/104쪽/3,000원).

——— 개신교의 성서 근본주의

성서에 대한 가톨릭과 근본주의파들의 이견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들의 논리를 좀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질문에 답을 구하는 가톨릭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안토니 질리스 지음·김세을 옮김/112쪽/3,000원).

——— 요세비의 꿈

인간이 자신에 대한 신념과 참 삶의 실현을 위해 현실의 벽들을 왜,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위기로부터의 초월 방법과 미래 지향적인 새 삶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책(알퐁소 라라 까스띠야 지음·김세을 옮김/120쪽/3,000원).

——— 하느님께 나아가는 일곱 단계

영성을 알고 살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영성생활로의 길잡이인 이 책은, 하느님의 구원능력을 받아들이고 인간이 변화되어 용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새 인간, 새로운 질서를 인격 안에서 경험하고 타인과의 관계와 생활현장에서 구원의 능력을 나누고 증거하는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다(백 잼마마리 옮김/104쪽/3,000원).

——— 들음의 신비

들음이 없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 놀라운 초대에 맞갖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복잡한 현세의 삶에서 진리와 생명이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들음의 신비에로 초대하는 안내서(김상옥 지음/110쪽/3,000원).

——— 살며 생각하며

이민생활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숱한 체험들을 시와 수필로 엮어 나간 이석현 님의 두번째 신앙 에세이집.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절감하게 되고 절대자 하느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됨에 따라 신앙 안에서 참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 묵상용 모음집(이석현 지음/168쪽/3,500원).

——— 사목상담의 원리

상담기술의 24가지 규칙을 말하며 일일이 그 예화를 들어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얘기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선 사목자들뿐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상담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상담기술의 지침서(배문한 옮김/88쪽/3,000원).

——— 레지오의 관리와 운영(上·下)

전 광주 세나뚜스 김영대 단장이 레지오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본을 알기 쉽게 풀이한 레지오 단원의 길잡이. 지금까지 교본에 대한 해설서의 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단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상권에 이어, 상권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권에서 정리하여 레지오의 관리와 운영 上·下를 펴냈다(김영대 지음/(上) 280쪽·4,000원/(下)304쪽·4,000원)

——— 참 진리는 이것이다

이 책은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개신교의 주장들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친절한 해답을 주면서 시비를 가려 주고 있다. 개신교 신자들은 이를 읽음으로써 가톨릭에 대한 허망된 오류를 불식하여 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고, 가톨릭 신자에게도 개신교의 오해가 어떤 것인지 이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도 반성케 함으로써 상호간의 일치와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종헌 지음/504쪽/8,000원).

——— 아일린 조지

말기의 암 환자로서 여덟 자녀의 어머니이며 교회 내에서 가장 빠르게 커가는 봉사 조직을 갖고 있는 아일린 조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려고 전세계를 다니며 애쓰고 있는 그녀가 미국과 해외의 많은 열광적인 청중들에게 전해 왔던 하느님의 메시지를 모은 책(아버지와의 만남 사도직회 엮음·김혜자 옮김/256쪽/3,500원).

——— 예수 성심 신심과 성시간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요청되는 가장 절실한 신심인 예수 성심 공경과, 그 공경 행위의 일부로써 지키는 성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성시간 기도 때에 알맞는 성서 구절과 기도문을 소개함으로써, 예수 성심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이 보다 주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홍근 지음/5,000원).

NIHIL OBSTAT

Andreas Yeom, Censor
Seoul, die 5, Jul. 1993

IMPRIMATUR

Stephanus Cardinal Kim
Archiepiscopus Seoulensis
Seoul, die 5, Jul. 1993

사 랑(주여 나를 받으소서 제1권)

1993년 6월 6일 초판 1996년 8월 6일 재판

글쓴이 재크린 시럽 버간 & 마리아 슈완
옮긴이 강연중
펴낸이 정옥동

펴낸데 성모출판사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206-10
전화 : 266-4251, FAX : 275-0925
등록 : 1988년 3월 21일 제2-530호

값 6,000원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리즈의 다섯 권 중
첫번째 책인 이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편심(不偏心)과
투신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사랑 및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모출판사